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經營學碩士學位 論文

부산 해양수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 3대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

The Role of Mass Media on the Form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Busan, the Ocean Capital of Korea
-Emphasizing on the 3 major economic daily newspaper-



指導教授 安 奇 明

2014年 6月

韓國海洋大學校 海事產業大學院

港灣物流學科

郭景皓

本 論文을 郭景皓의 經營學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李 基 煥 印

委 員 柳 東 瑾 印



委 員 安 奇 明 印

2014년 6월

韓國海洋大學校 海事産業大學院

港灣物流學科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제2장 한국 경제발전과 마스크의 역할	4
제1절 마스크의 개념과 유형	4
1. 마스크의 개념과 의의	4
2. 마스크의 유형	5
제2절 한국 경제발전에서 마스크의 역할	8
1. 신문(경제신문)의 역할	8
2. TV, 라디오의 역할	12
3. 인터넷의 역할(SNS를 중심으로)	13

제3장 선행연구 고찰	15
1. 언론이 해양 정책에 미치는 영향	15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	16
3.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18
제4장 부산항 발전에서 경제신문의 역할 조명	20
제1절 해양 수도화를 위한 부산시의 역점 사업 현황	20
제2절 3대 경제신문의 ‘부산 해양 수도화’ 관련 보도 분석	24
제5장 부산 해양수도화를 위한 3대 경제신문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30
제1절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30
1. 연구가설	30
2. 연구모형	31
제2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32
1. 독립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32
2. 종속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33
3. 자료수집과 연구대상	33
제3절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3대 경제신문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 증 분석 결과	35

1.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요도	35
2. 부산해양수도화의 언론 역할 분석	43
3. 주요 해양 정책에 대한 언론의 역할 중요도 분석	48
제4절 부산 해양 수도화의 언론 역할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	56
1. 타당성분석	56
2. 신뢰성분석	58
3. 가설검정	58
제6장 결 론	63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63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67
<참고문헌>	69
부록 :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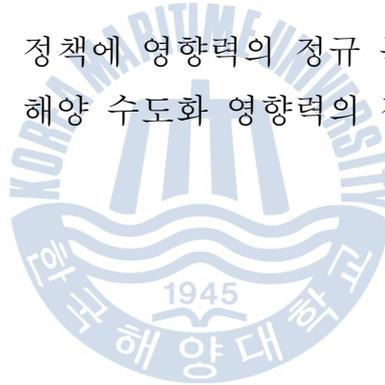
〈표 차례〉

<표 2-1> 우리나라 미디어종류별 매체별 구분	6
<표 2-2> 우리나라 매체종류별 미디어(기업)-방송	7
<표 2-3> 우리나라 매체종류별 미디어(기업)-신문	7
<표 2-4> 우리나라 매체종류별 미디어(기업)-통신, 인터넷	7
<표 2-5> 국내 3대 경제신문 주요 현황	10
<표 2-6> 국내 SNS 가입자 현황	14
<표 3-1> 부산일보가 북항재개발 관련 여론에 미친 영향	16
<표 3-2>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 연구	17
<표 3-3>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증 결과	19
<표 4-1> 부산 신항만 건설	22
<표 4-2> 국제해운거래소설립 계획(안)	23
<표 4-3> 해양수산부 관련, 주요 중앙일간지 지면보도 건수	25
<표 4-4> 주요일간지 ‘북항재개발’ 관련 지면기사 게재 분석	27
<표 4-5> 주요 일간지 ‘선박금융공사’ 관련 보도 분석	28
<표 5-1> 측정변수와 설문항목	33
<표 5-2> 유효설문지 표본분포	34
<표 5-3> 응답자 근속연수 분포	34
<표 5-4> 언론기관 응답자 직무 분포	35
<표 5-5> 항만클러스터 정책중요도 응답	36
<표 5-6> 북항재개발 정책중요도 응답	36
<표 5-7> 선박금융공사 설립 정책중요도 응답	37
<표 5-8> 자유무역항 지정 정책중요도 응답	38
<표 5-9> 채용조달과 투자체계 합리화 정책중요도 응답	39
<표 5-10> 마리나 산업 활성화 정책중요도 응답	40
<표 5-11>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중요도 응답	40
<표 5-12> 해양 수도화 정책결정과 실행의 효율성 응답	41

<표 5-13> 공무원과 언론종사자의 인식 차이	42
<표 5-14> 정책목표에 대한 언론의 역할	43
<표 5-15> 해양 수도권화에 필요한 기사내용	44
<표 5-16> 언론보도의 정책반영 이유	44
<표 5-17> 경제신문의 보도빈도	45
<표 5-18> 신문보도의 정책의 영향력	45
<표 5-19> 경제신문의 해양 수도권화에 대한 영향력	46
<표 5-20>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의 인식차이	47
<표 5-21> 자유무역항 지정의 언론역할 중요도	48
<표 5-22> 항만클러스터 구축의 언론역할 중요도	49
<표 5-23> 북항재개발의 언론역할 중요도	49
<표 5-24>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언론역할 중요도	50
<표 5-25> 채원조달과 투자체계 합리화의 언론역할 중요도	51
<표 5-26>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의 언론역할 중요도	51
<표 5-27> 마리나산업 활성화의 언론역할의 중요도	52
<표 5-28>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언론역할의 중요도	53
<표 5-29>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 언론역할의 중요도	53
<표 5-30>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의 인식차이	54
<표 5-31> 경쟁력 영향요인의 중요도 순위 분석	55
<표 5-32> 주요 정책의 언론역할 중요도 순위 분석	56
<표 5-33> 부산 해양 수도권화 요인의 요인분석결과	58
<표 5-34> 부산 해양 수도권화 요인의 신뢰성분석결과	59
<표 5-35> 회귀분석 적합도	60
<표 5-36> 신문보도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	60
<표 5-37> 회귀분석 적합도	61
<표 5-38> 경제신문이 부산 해양 수도권화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	61

<그림 차례>

<그림 2-1> 매체별 신뢰도	13
<그림 4-1> 부산시의 동북아 첨단 해양과학기술도시 실현 비전	20
<그림 4-2> 부산 신항 건설 조감도	21
<그림 4-3> 부산 선박수리조선단지 위치도	22
<그림 4-4> 부산 신항 유류중계기지 위치도	24
<그림 4-5> 중앙일간지 해수부관련 지면기사	26
<그림 4-6> 중앙일간지 북항재개발 지면기사	27
<그림 4-7> 중앙일간지 선박금융공사 지면기사	29
<그림 5-1> 연구모형	31
<그림 5-2> 신문보도의 정책에 영향력의 정규 분포도	61
<그림 5-3> 경제신문의 해양 수도화 영향력의 정규 분포도	62



Abstract

The Role of Mass Media on the Form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Busan, the Ocean Capital of Korea
-Emphasizing on the 3 major economic daily newspapers-

Kwak, Kyoung Ho

Major in Department of Port Logistics

Graduate School of Maritime Industrial Studies

Korea Maritime University

Korea is the world's maritime powers in 2000 after the last jump Banner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pursuing authentic development plan. Maritime powers of the world's top 10 after took place, particularly in Korea, Busan is the backbone of the economy as a city of the maritime industry, as well as domestic capital Northeast Marine straightening composition for various infrastructure and proceed out to be a large project.

Busan is the same for the government and since 2000 in Busan, considering that you want to actively foster the de facto capital of maritime policy has been spread, especially in the last five years, including the resurrection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 the marine fisheries sector in Busan before public authorities, ship finance, Ltd

was established in , the establishment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in Busan also has maritime infrastructure to be poured emphasis on composition.

Busan Busan is the ocean, like the government and also want to foster Ther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policy can be seen today. However, the composition of ocean water in Busan, including status and political will to actively promote people to reflect public opinion, or citizens, including the right to present a political line which has been supporting the role of the media will not be able to never be overlooked.

In particular, Korea's economy is among the three economic sectors have been leading opinion paper is to stretch myself in Busan also has maritime won considerable influence. Busan city government and policy-making is when various marine-related papers are related to these major economies, reflecting public opinion and policy, including proposed routes have been a number of efforts.

In this study, three marine Busan Economic Daily also angry that while the media compared with other newspapers, which tend to appear perpetrated Press reported frequency of major yisyubyeol research, study.

Busan, media workers and civil servants also, related agencies and employees, such as construction policy, planning and executing business associates, industry and academic officials to survey, Economic Daily reported that over three Busan Maritime Capital Anger affect kkichyeotneun about

whether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the research purpose.

Section 2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And how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irst established theoretical concepts of media at home and abroad, such as media type and media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role.

Second, the composition of ocean water for Busan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he media, such as literature research and survey activities of, and parallel to the previous research study was carried out.

Third, the three economic newspaper that the composition of the ocean during the Busan capital than those of other newspaper media, which indicates a high degree the frequency of reported cases perpetrated Associated Press investigation was conducted directly.

Fourth, the three economic newspapers in comparison to other paper media for Busan Marine may fire the great news on efforts to prove that media workers, government officials, industry, and academia to perform a survey on stakeholders and analyzed .

Finally, analysis of the data gathered in the survey should take the following statistical methods were used. First, the survey questions the reliability of the Crohn's Baja a verification methods (Cronbach's Alpha) of the internal consistency assays have been tested was the independent

variable configuration validity (Construct Validity) and black order variables are linear combinations under the assumption that factors to extract Method main component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using the factor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William G. Cochran, Gertrude M. Cox, Experimental Designs, 2n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57.

Research to identify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factors related to Busan policy impact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Pearson correlation path model by AMOS 4.0 (SEM) were used. In particular, factors that increase the suitability of the path model in order to explore the potential factors 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AMOS 4.0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is performed to establish the final path analysis model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was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 해양강국 도약을 기치로 지난 2000년도 이후 ‘동북아 물류허브’ 조성 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후 세계 10위권 해양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부산은 우리나라 해양산업경제의 중추도시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조성 과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 2000년 이후 부산항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으며, 특히 지난 5년간 해양수산부 부활을 비롯해 해양 수산분야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선박금융공사 설립,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등 부산이 해양수도로 가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쏟아 붓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부산시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데는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양수도 부산 조성의 현황과 정책적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시민 여론을 반영, 올바른 정책적 노선을 제시하는 등 이를 뒷받침 해온 언론의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 여론을 선도해온 3대 경제신문은 부산이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차지했다. 정부나 부산시가 각종 해양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이들 주요 경제신문들이 관련 여론을 반영, 정책적 노선을 제시하는 등의 수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3대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이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그 동안 타 신문 매체들과 비교, 어떤 보도 경향을 나타냈는지 주요 이슈별 보도빈도를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론종사자 및 부산시 공무원, 관련 기관 및 공사 임직원 등 정책, 사업 입안과 실행 관계자,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해 3대 경제신문 보도가 ‘부산 해양수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먼저 매스컴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국내외 매스컴 종류와 매체별 역할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둘째,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활동에 대해 문헌조사와 실태조사, 선행연구 고찰 등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셋째, 3대 경제신문이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해 그 동안 타 신문매체들에 비해 어느 정도 높은 보도 빈도를 나타냈는지 관련 보도사례의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3대 경제신문이 타 신문 매체들에 비해 부산 해양수도화를 위해 지대한 보도 노력을 경주해 온 점들을 입증하기 위해 언론종사자, 공무원, 업계, 학계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설문문항의 신뢰성은 크론바하 α 검증방법(Cronbach's Alpha)에 의한 내적 일관성 검사법에 의해 검증하였으며, 독립변수의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이 선형결합이라는 가정하에 요인을 추출하는 주성분법(Principal Components)을 이용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¹⁾.

설문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문항의 중요성을 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의 응답차이는 T-검정방법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순위비교는 칸달의 순위검정방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항 해양수도화 요인과 경제신문의 해양수도화 영향력 간의 관련성여부는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

1) William G. Cochran, Gertrude M. Cox, Experimental Designs, 2n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57.

로 분석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제2장 한국 경제발전과 매스컴의 역할

제1절 매스컴의 개념과 유형

1. 매스컴의 개념과 의의

매스컴(masscom)은 대량 전달의 뜻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의 준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대중을 일정한 행동으로 몰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회 현상과 대인 관계에 대한 마음가짐을 전달하고, 그 사회적 태도나 이데올로기를 은연중에 소기의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활동’²⁾을 말한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선전 광고로 매스미디어로서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이 중요하며, 비주얼 디자인도 그 역할을 지닌다.

매스컴의 과정은 ① 송신자(매스컴 기업이나 스폰서 등), ② 메시지(보내는 기사, 프로그램 등), ③ 미디어(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인쇄물 등), ④ 수신자(대중)의 네 가지 요소로 성립된다. 또 수신자 측에서 본다면, 받아들이는 내용(메시지를 이해하는 방법), 반응(그 자리에서의 반응), 커뮤니케이션 효과(장기에 걸친 사회 심리적 영향)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매스컴의 개념은 일반대중에게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³⁾ 즉 조직화된 송신자 측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상에게 메시지나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사회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TV, 신문, 잡지, 영화, 비디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기구가 매스미디어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으로는

(1) 기업성 : 공적-사적인 기업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독자나 시청자의 획득이 우선되어 메시지 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 비인격성 :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기계적 기술이 개재하기 때문에 전

2)류은주 외, “매스미디어의 개념” 모발학 사전, 광문각(2003).

3)류은주 외, “매스미디어의 의의” 모발학 사전, 광문각(2003).

달 내용이 비인격화된다,

(3) 일방향성 : 통상 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로부터의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수신자는 신속하게 반응할 수 없다,

(4) 획일성 :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내용이 획일화되기 쉽다,

(5) 동시성-신속성 : 정보전달은 기계적 기술을 이용하여 각 지역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정치권력에 있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체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광고활동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 여론의 조작, 프로퍼갠더(propaganda)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역으로 국민에게는 정치권력에 대한 요구나 평가를 소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여론형성 등 일종의 정치참가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보도기관으로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치·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자립되어 있으며 이른바 ‘불편부당(不偏不黨)’, ‘중립적 객관보도’ 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관으로서 생각하면 독자적인 취재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여론이나 정치운동의 계기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현대 사회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영향은 실로 막강하다.

2. 매스컴의 유형

미디어란 매체(媒體)·수단(手段)이란 뜻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전달을 매개하는 기계적·기술적·조직적 수단을 말한다. TV, 신문, 라디오, 잡지, 영화, 광고 등 정보전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매체가 전통적으로 매스미디어라고 칭해지며 4)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편지, 전화, 팩시밀리 등과 구별된다. 그러나 퍼스널 컴퓨터를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것의 보급으로 정보전달의 대상을 특정하면서도 전통

4)한국사전연구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05)」.

적인 매스미디어와 근사적인 성질을 갖춘 매체가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지금까지의 매스미디어 개념을 확대하여 인터넷에서 박물관, 공공도서관, 종교, 정치까지를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신문 등의 전통적 매스미디어는 근대국가의 형성, 보통선거의 보급과 정치의 대중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전국시장의 형성, 근대 교육제도의 보급과 식자율의 확대 등으로 함께 발달하였다. 5)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대중신문의 시대가 도래 하여 신문이 매스미디어의 주류가 되었다. 20세기 초반에 라디오가 등장하여 주요한 매스미디어로 성장하였지만 이윽고 TV가 매스미디어의 주류가 되어 라디오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신문의 위치도 상대화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전자기술의 발달로 위성방송, CATV 등 뉴미디어가 점차 등장하여 미디어의 다원화와 융합이 진행되었다. 멀티미디어화 속에서 TV의 위치도 상대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발달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매스미디어의 집중과 통합,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되어 세계적 규모로 매스미디어 기업이나 조직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매스컴이라 총칭되어 사용되는 것은 미디어, 즉 보도나 정보 등을 전달하는 매체 또는 플랫폼(platform) 별로 구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표 2-1> 미디어 종류(매체별 구분)

구분	종류
방송매체(TV)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방송매체(라디오)	지상파, 인터넷
인쇄매체	신문, 잡지, 서적 등 간행물
온라인매체	뉴스 통신사, 인터넷신문, SNS 등

5) 한국사전연구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05)」.

또 여기서 매체별 성격과 특성으로 구분한 우리나라 미디어(기업)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주요 중앙언론사를 중심으로)

<표 2-2> 우리나라 매체종류별 미디어(기업)-방송

구 분	매 체
지상파방송(TV)	KBS MBC SBS
지상파방송(라디오)	CBS, PBC, BBS
케이블방송 (종합편성채널)	MBN, TV조선, 채널A, JTBC
케이블방송 (보도채널)	YTN, 뉴스Y
케이블방송 (경제채널)	서울경제TV, 한국경제TV, 이데일리TV, SBS CNBC 등
케이블방송(기타)	PP(프로그램 프로바이저)사업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표 2-3> 우리나라 매체종류별 미디어(기업) - 신문

구 분	매 체
일간신문 (종합일간지)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일간신문 (종합경제지)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잡지(주간/시사)	시사저널,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경향, 시사인, 한겨레21
잡지(주간/경제)	매경이코노미, 환경비즈니스, 머니위크
잡지(월간/시사)	월간조선, 월간중앙, 월간동아, 포춘코리아

<표 2-4> 우리나라 매체종류별 미디어(기업) - 통신, 인터넷

구 분	매 체
뉴스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조선비즈, 이투데이, 데일리안, 프레시안

제2절 한국 경제발전에서 매스컴의 역할

1. 신문(경제신문)의 역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신문은 메이저 3사인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가나다순)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서울경제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신문으로 지난 1960년 한국일보의 자매지로 창간됐다. 창업자인 백상 장기영 선생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할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낸 인물로, 한국일보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그가 군사정권시절 언론사주로서 경제부처 수장을 지낸 것은 국내 첫 경제신문인 서울경제신문을 창간했고, 당시 서울경제신문이 국가 경제 정책입안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의 탄생은 장기영 선생을 비롯, 경제부총리를 지낸 남덕우 씨 등 당시 국내 경제계의 중심에 섰던 학자, 관료, 정치인 등이 주도했다.

자립경제의 당면과제를 뒷받침하고 규모 있는 가정살림의 지침이 되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창간돼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민들의 경제인식을 피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당시 1면에 게재되던 경제해설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의 호평을 받았다. 1999년 6월 12일 지령 1만 호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맞아 7월에는 『서울경제』 일본어판을 발행하고, 이어 10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제휴를 맺어 『골프매거진』 한국어판을 발행하는 등 사세확장에도 박차를 가했다. 11월 1일부터는 주중 40면 합쇄체제로 증면하기도 하였다.⁶⁾

2000년 10월 1일 『한국일보』로부터 분리·독립하였고, 2007년 1월 27일에는 사옥을 종로구 중학동에서 중구 충무로로 이전하였으며, 5월 9일부터는 중

6) 한국 사전연구, 「서울경제신문의 역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05).

합일간지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07년 12월 26일 케이블TV(무협TV)를 인수하는 한편, 2008년 10월 10일에는 '서울경제TV'를 개국하기도 하였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964년 《일간경제신문(日刊經濟新聞)》으로 창간되어 1965년 10월 12일 《현대경제일보(現代經濟日報)》로 제호가 바뀌었고 1980년 11월 26일 현재의 《한국경제신문(韓國經濟新聞)》이 되었다.

민주시장경제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7년 4월에는 한국 최초의 전자신문인 'KETEL'(PC통신 하이텔의 전신)을 개발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뉴스를 제공했으며, 1990년 12월 한국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신문제작전산시스템(CTS)을 전면 도입했다. 2000년 증권·경제 전문 케이블방송인 '한국경제TV'를 개국했다. 2005년 5월 고교생 경제교육신문 《생글생글》을 창간했다. 미국의 《The Wall Street Journal》, 중국의 《경제일보》 등과 기사특약을 맺고 있다. 7) 매일경제신문은 3대 메이저 경제신문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1966년 창간됐다. 한국 경제의 자립과 번영의 길잡이를 목표로 내세우며, 사시(社是)를 '신의 성실한 보도, 부(富)의 균형화 실현, 기술개발의 선봉, 기업육성의 지침'으로 정하여 경제전문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00년 10월 1일 신사옥인 매경미디어센터 입주를 계기로 비전선포식을 가졌고, 같은 해 12월 11일 증권전문채널인 매일증권TV(MBNs)를 개국하였으며, 2001년 3월 신문지면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컬러코드를 도입하였다. 2005년 12월 1일 지상파DMB 'mbn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였고, 2007년 12월부터 국내 최초로 40면 전면 컬러체제를 가동하였다.

2009년 4월 현재 일본의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 중국의 『신화 Financial Network』 등 4개국 7개 신문 및 통신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다.

7)두산대백과사전, 「국내 경제신문 현황」, 두산출판사(2009).

<표 2-5> 국내 3대 경제신문 주요 현황

매체명	창간년도	발행면수	주요 창간정신
서울경제	1960	40	국민경제 이바지
한국경제	1964	40	민주시장경제 구현
매일경제	1966	40	부의 균형화 실현

여기서 신문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 인간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크게 나누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행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인격적 커뮤니케이션)’ 과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비인격적 커뮤니케이션)’ 이 있다. 8)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근대 이전의 농업을 주로 한 촌락에서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만 의존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늘어나고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환경이 확대된 근대사회가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비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형태로 대두되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러한 사회발전 단계에서 성립되었고, 신문도 그 과정에서 최초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가장 유력한 미디어가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직접 접촉하고자 하는 외적 환경에 관한 뉴스를 주체로 한 갖가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대중은 신문이 전달하는 정보에 의지해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간다. 그러나 신문이 전달하는 정보는 변화하는 환경의 전체일 수는 없고, 편집자에 의해 선택된 일부이기 때문에 보도기사의 정확성과 선택의 신중성이 크게 요청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보성도 요청된다. 이러한 신문의 속보성은 최근에 와서 전파 미디어의 발달, 특히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다소 감소된 반면, 그 대신 해설과 심층 보도 기능이 중요시되는 경향을 띤다. 신문의 기능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기본적 기능과 부수적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본적 기능으로는 ① 독자들에게 그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② 일어난 사실들의 문제점을 구명하기 위해 뉴

8)두산백과사전, 「신문의 역할」, 두산출판사(2002).

스를 사설을 통해 논평하며, ③ 상품과 용역(서비스)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재화를 팔 수 있도록 광고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대량생산 ·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경제의 순환과정에 있어서 광고매체로서 신문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부수적인 기능으로는 ① 대중에게 희망적인 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해로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여론의 환기, ② 만화 · 만평 또는 그 밖의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독자들에게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③ 독자의 진실한 상담자로서 각종 생활정보를 주고, 권리의 이행과 수호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들고 있다. 대개 이러한 기능들을 요약하면 신문의 기능은 보도의 기능, 논평의 기능, 오락의 기능, 광고의 기능 등으로 크게 나눈다.

다시 이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기능면에서 볼 때는 ① 환경감시 기능, ② 상관조정(相關調整) 기능, ③ 문화전수의 기능 등을 들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신문의 기능은 현재적(現在的) 및 잠재적(潛在的) 기능으로도 고찰할 수 있고, 이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따라 정기능(正機能:순기능)과 역(逆)기능으로 다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때 경제신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지는 단순히 경제정보의 전달자에 머물지않고 관리자 되어야한다. 경제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해 수준은 불행히도 대단히 낮은 상태에 있다.

경제지는 국민들에게 경제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9) 경제지는 단순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에 머물지 말고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과정에 깊숙이 참여해야한다. 그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감시기능도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없이 많은 경제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지는 사회의 목탁으로서 이러한 경제 환경에 대해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9)매일경제, 「서정우 칼럼」,매일경제신문(1991).

2. TV, 라디오의 역할

방송은 전파를 통해 TV나 라디오 같은 플랫폼으로 영상과, 음향을 전달하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케이블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방송매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방송은 기존 신문과 함께 다 매체 시대의 경쟁 속에 보다 특화된 콘텐츠로 시청자, 청취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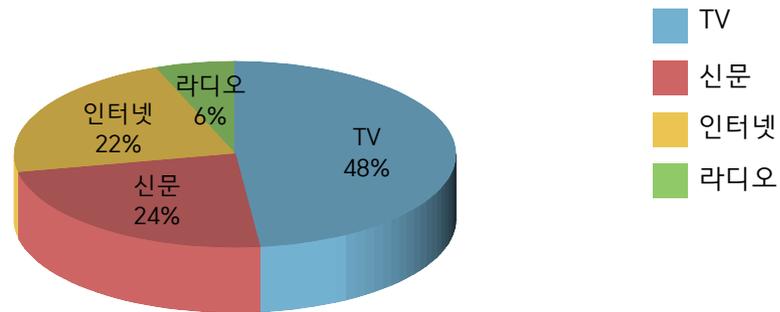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처럼 TV 방송은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 인터넷(IPTV) 등 플랫폼별로 구분되며, 허가(승인)조건별로 종합지상파, 보도, 종합편성, 경제, 종교, 스포츠, 교양 등의 60여 가지 장르로 나뉘지고 있다.

현재 국내 TV 종합지상파는 3대 방송과 함께 지방의 10개 민영방송으로 구성된다. 케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TV는 보도채널 2곳, 종합편성 4곳이며 나머지 장르별로 총 200여개 방송사업자가 활동 중이다. 라디오는 3개 지상파라디오를 포함, 보도, 교통, 종교 등 10여개 사업자가 운영되고 있다.

TV는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 매체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속보성’ 과 ‘역동성’, ‘다양성’ 등을 내세워 여전히 여론 형성과정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갤럽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 조사에서 TV가 1위를 차지했다. 10) 한국갤럽이 2014년 4월 전국 성인남녀 8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 TV 41%, 신문 20%, 인터넷 19%, 라디오 5%를 꼽았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 꼭 봐야하는 매체로는 TV 46%, 인터넷 27%, 신문 21% 등을 선정했으며, 가장 재미있는 매체로는 TV 51%, 인터넷 32%가 선정됐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 중 TV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 199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없던 인터넷의 비중이 매우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신문에 불만족하는 사람은 35%, 만족하는 사람은 43%로 조사됐으며, 종이신문보다는 PC,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통해 신문을 보는 경우가 57%로 더 많았다. 반면 라디오의 경우는 다매체의 홍수 속에 ‘비주얼’ 을 중시하는 경향과 맞물려 영향력이나 신뢰도가 지난 90년대 이후 4~5%수준에 머물며 매체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 비주얼 다이브. 「국내 매체별 신뢰도 조사 결과(2012)」.



매체별 신뢰도
 <그림 2-1> 매체별 신뢰도

위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 특히 TV는 시청자들에게 예능, 연예, 스포츠 등 다양한 오락프로그램 제공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 뿐 만 아니라 보도나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 다시 말해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TV의 보도가 국민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인터넷의 역할(SNS를 중심으로)

모바일 플랫폼과 SNS는 이미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한 축이 됐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대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3천만대를 돌파하며 데스크톱 및 노트북을 이미 넘어섰고 디지털 패러다임의 무대와 플랫폼은 PC와 웹에서 모바일과 SNS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11) 단기간에 다양한 유형의 SNS가 등장하면서 SNS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SNS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SNS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확산으로 과거 인터넷 혁명이 대중화되던 시절의 흥

11) 블로터 닷넷, 「우리나라 인터넷 SNS 가입자 조사 결과(2012)」.

페이지와 같이 각 조직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매체로서의 보편성을 점차 확보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SNS의 효용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적어도 “SNS 혹은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가 부상하고 있다. 2011년 3월 현재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의 사용자는 약 14억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4~5년간 급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SNS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다. 2011년 말까지 SNS 확산의 기술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2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확산과 더불어 SNS사용자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표2-6>국내 SNS 가입자 현황

구 분	가입자 수
트위터	310만명
페이스북	410만명
미투데이	500만명

자료: 블로터 닷넷, 「국내 SNS가입자 조사」, 2011년 3월.

2011년 3월 현재 국내에서 트위터 가입자는 310만 명, 페이스북은 410만 명, 미투데이는 5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이는 전 세계 4위에 해당한다.¹²⁾ SNS는 일반적으로 네티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웹을 기반으로 개인들에게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공개적이거나 조건부 공개의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 관계를 공유하는 다른 이용자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리스트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시스템 내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구축한 리스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로 정의되고 있다.

12) 연합뉴스, 「퓨리서치, 한국 소셜네트워크 이용률 세계 4위권(2010)」.

제3장 선행연구 고찰

미디어가 정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경제신문이 경제 분야, 특히 해양 항만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 연구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여기서는 미디어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등의 각종 정책 입안 등에 미치는 유사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언론이 해양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상윤(2010년)은 ‘언론이 해양 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먼저 부산항과 관련된 해양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집단으로는 크게 지역 NGO, 언론, 학계를 들었다. 이들 견제집단 가운데 해양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언론이라고 소개했다.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일보가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면을 선보이며 해양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보도에 앞장서며 해양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일보는 1986년 8월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라는 부서를 신설해 국내 최대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경제인구의 40%가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경제부로 통합됐으나 1991년 해양수산면이 새롭게 생기면서 본격적인 해양 분야 전문보도의 시대를 열었다. 현재 부산일보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등 주 3회에 걸쳐 고정적으로 해양수산면을 게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부산일보가 지역 최대 항만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업계, 학계, 언론계, 시민, 기타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120부를 회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4월 한 달간이며 회신율은 최하 12%~ 최고 35%였다.

조사 결과로는 부산일보 보도를 통해 북항재개발의 지역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5점 척도 기준 평균값이 4.07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3) 계층별로는 시민들이 4.3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언론계가 4.2이며, 학계가 3.8로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언론보도가 북항재개발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99로 나타나서 지역 여론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계층별로는 언론계가 4.1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계가 3.67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계 역시 3.79로서 언론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1> 부산일보가 북항재개발 관련 여론에 미친 영향

구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P)
업계	4.0000	1.12815	0.32567	1.766(0.141)
학계	3.8276	0.80485	0.14946	동일
관계	4.0571	0.72529	0.12260	동일
시민	4.3333	0.48305	0.01541	동일
언론	4.2174	0.51843	0.10810	동일
평균	4.0750	0.73522	0.06712	동일

자료; 이상윤 한국해양대 석사논문(2010)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

강철수(2003)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매스미디어는 정책문제를 탐사, 조사 및 폭로를 통해 공표,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입안을 요구하며 정치적 결과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영향을 미쳐,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매스미디어는 정책문제 제기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행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는 또 정책결정과정에 정책 행위자로 참여하여

13) 이상윤, 「언론이 해양 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0년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매스미디어의 노력이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매스미디어는 기대했던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중단되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정책 행위자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와 중단되는 경우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제주 4.3사건’ 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의 탐사 보도 사례, 그리고 ‘FX 사업’ 의 폭로보도 사례 등 3가지이다.

이 연구는 위의 3가지 보도 사례를 통해 각각의 보도가 진상규명, 제도개선, 정책입안 등을 희망, 또는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했고, 각각 보도를 통해 정책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적 결과가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표 3-2>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 연구

구분	1960년대 사례	1990년대 사례
정치적결과	*국회조사단의 조사 이외의 정책성과 가져오지 못함. *5.16쿠데타이후정책논의 자체 봉쇄	*1999년 12월 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국회통과 및 2000년도 제정 *국무총리산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의생자 명예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2000년
이슈의 성격	*인권 /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양민피해보상)	*인권/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인권의 신장/ 양민피해자의 명예회복)
보도자 (매스미디어)의 의지 및 태도	*의지 및 태도는 강하였지만 준비 부족 *피해 자체 접수 및 국회제출/ 해당자 고발	*충분한 준비/사실 검증 및 DB화 *지속적 후속보도 유지로 여론형성 및 정책입안요구 (객관적 사실, 증언 수집)

자료; 강철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 연구(제주 4.3사건)」, 2003년 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문.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정책결정과정에 정책행위자로서 참여하여 어떤 정치적 결과나 정책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정책 행위자로서 정책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요인을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14)정책결정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매스미디어는 정책문제를 탐사, 조사 및 폭로를 통해 공표,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입안을 요구하며 정치적 결과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쳐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매스미디어는 정책문제 제기자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행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매스미디어가 정책결정과정에 정책행위자로 참여하여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매스미디어는 기대했던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중단되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이 연구는 지적했다.

3.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양완(2009)은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정부 공무원의 매우 큰 신뢰를 받는 지역 언론매체가 스스로 건전한 정책 수립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지역 언론매체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언론을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정책 홍보를 위한 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언론을 토대로 발표되는 내용들이 사회에 과급시키는 영향력, 효과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9년 현재 지방정부에 재직 중이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안 및 결정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설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14)강철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 (2003년 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문).

중 전라남도 광양시 전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표집 대상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지역 언론보도의 정책결정에의 영향성에 관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직급에 따른 영향성의 차이는 지역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역 언론의 보도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5급 이상의 공무원(M=4.03,SD=0.492)이 6급 공무원(M=3.64,SD=0.725)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3,t=-2.991)¹⁵⁾. 또한 담당업무 추진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보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5급 이상의 공무원(M=3.79,SD=0.577)이 6급 공무원(M=3.41,SD=0.766)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7,t=-2.722).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 정책으로 의견 수렴되는 과정에서 지역 언론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5급 이상의 공무원(M=3.66,SD=0.669)이 6급 공무원(M=3.36,SD=0.616)보다 더 많은 영향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8,t=-2.390).

<표 3-3> 직급에 따른 인식차이 검증 결과

구분	6급		5급이상		t	p
	M	SD	M	SD		
정책감시	3.59	0.812	3.63	0.675	-0.273	0.786
비판	3.48	0.669	3.50	0.647	-0.139	0.889
공정성	3.51	0.592	3.82	0.512	-2.782	0.006
공공기관 대변	3.40	0.811	3.42	0.642	-0.157	0.875
주민 대변	3.47	0.817	3.50	0.640	-0.203	0.839
신뢰도	3.41	0.716	3.61	0.718	-1.393	0.166

자료; 김양완 광주대 석사논문(2009)

15)김양완,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9년 광주대학교 언론학 석사 논문).

제4장 부산항 발전에서 경제신문의 역할 조명

1절 해양 수도화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 사업 현황

부산시는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부산의 동북아 해양 수도화 작업은 항만과 관련 인프라, 첨단 해양산업 육성 등이 골격을 이룬다. 여기다 해양수산물 부활과 정책 활성화 등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같은 부산시의 비전 달성에는 지자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한 부산시의 정책입안과 중앙정부의 협조와 연계는 필수조건이다. 부산시는 먼저 이를 바탕으로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2009년 5월 정부 MT계획과 연계한 '해양과학중심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안 기본계획'과 2009년 MT Action Plan을 수립, 12개분야 58개 과제를 발굴¹⁶⁾하였으며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해양산업육성조례』를 2010년10월 제정, 해양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4-1> 부산시의 동북아 첨단 해양과학기술도시 실현 비전(자료; 부산시)

16) 부산시, 「동북아해양수도 도약 비전(2012)」.

부산시는 동북아 해양수도 조성을 목표로 부산이전 해양관련 연구기관과 산, 학, 연, 관 협력을 중심으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동북아 R&D Hub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생명공학 등 신 해양산업창출을 기반으로 Blue Ocean의 첨단산업을 육성 중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해양생물 산업체를 발굴, 제품의 생산 판매에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여 해양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장군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는 동북아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항만 각종 항만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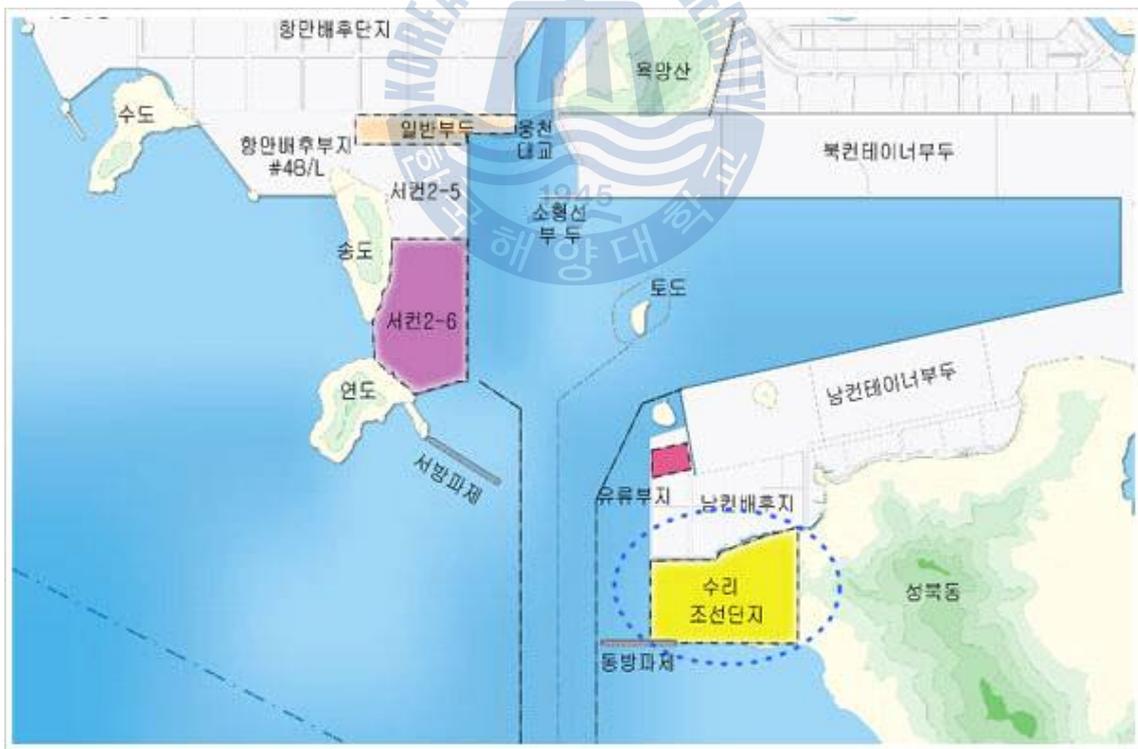
<그림 4-2> 부산 신항 건설 조감도(자료; 부산시)

지난 95년 착공된 신항만 건설 사업은 2단계 기간인 2011년까지 78%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오는 2015년 선석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표 4-1> 부산 신항만 건설 개요

사업기간	1995 ~ 2015
사업개요	컨테이너 전용부두 30선석 건설
1단계(2009)	14선석
2단계(2011)	8선석
3단계(2015)	8선석

부산 신항 건설은 선석 건설 외에도 배후부지 1,095만㎡, 배후단지 670만㎡를 조성한다. 이 가운데 북권 308만㎡중 170만㎡ 배후단지 지정(잔여 138만㎡는 주거·상업지역 제외)남권 142만㎡ 전체 배후단지 지정. 용동 645만㎡중 358만 배후단지 지정(잔여 287만㎡는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이다.



<그림 4-3> 부산 선박수리조선단지 위치도(자료; 부산시)

부산시는 또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부산항 신항 개장 및 대형선박 입·출항에 따른 2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

수리조선소 건립으로 동북아 중심항 으로서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치는 부산 신항 남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남쪽원이며, 사업규모는 Dock 2기, 안벽 3선석(1.2Km), 상부시설 1식부지 65만4,000㎡(육상부지 348천㎡, 수면 부 306천㎡)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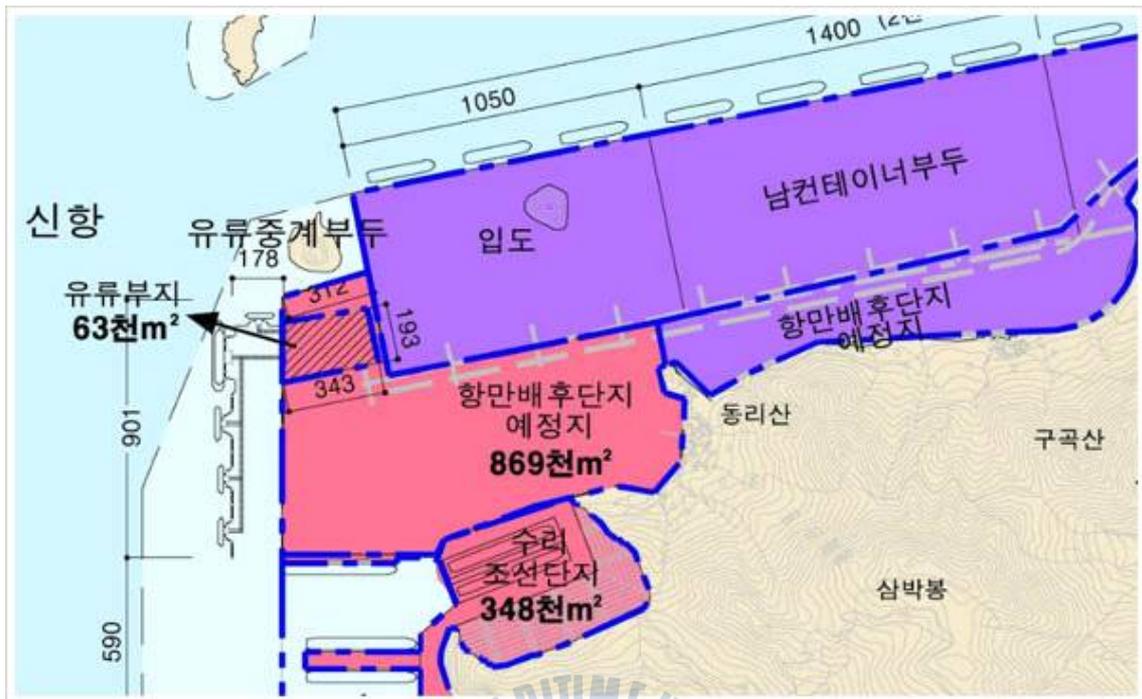
이 사업은 2014년 항만기본계획변경, 민자 사업제안 및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15년 실시협약 체결 및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 외에도 국제해운거래소 설립과 유통중계기지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산 신항 개발, 금융 중심도시 지정 등 해운거래 기반을 갖춘 부산에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통해 아시아권 해운 정보·거래 중심도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표 4-2> 국제해운거래소설립 계획(안)

구 분	내 용
위치	강서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부지 내
규모	정규직원 100명
사업기간	2011 ~ 2015
추진주체	국토부, 부산시, 해운중개업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세부내용	선박, 항만장비 등 현물거래, 파생상품거래, 정보분석센터

유통중계기지 구축사업은 부산 신항 남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하측 부지 6만3,000㎡에 안벽3선석(9만톤급1, 1만톤급2)과 함께 저장시설 탱크 14기, 기타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며 BTO(Build-Transfer-Operate / 기본시설), BOO(Build-Own-Operate / 기능시설) 방식을 통해 2014년 착공할 계획이다.



<그림 4-4> 부산신항 유류중계기지 위치도(자료; 부산시)

부산시는 부산 신항 개장 및 대형선박 입·출항에 따른 접안급유체계 도입으로 대량의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중계시설구축으로 신항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선박 급유업, 선박수리업 등 연관 산업 육성으로 종합물류항만 및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2절 3대 경제신문의 ‘부산 해양수도화’ 관련 보도 분석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데는 위에서 언급한 부산시의 각종 항만인프라 조성 사업 외에도 중앙정부와 연계된 해양 인프라 조성, 제도 도입과 정책입안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다 부산을 해양수도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배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부산 해양수도화’에 경제신문이 그 동안 어떤 보도 경향을 나타냈는지, 부산항의 주요 이슈별(해양수산부

부활, 북항재개발 건설, 선박금융공사 설립) 보도 빈도를 먼저 조사하였다.

부산 해양수도화 가장 큰 이슈인 ‘해양수산부 부활’ 과 관련된, 보도를 지난 5년간(2009. 4월~2014. 4월) 신문(중앙언론사) 지면에 게재된 기사로 한정 해 조사한 결과 종합일간 (10개), 경제신문(7개) 등 17개 언론에서 총 943건의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도는 대부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지면을 통해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3대 경제신문 보도가 전체의 22.6% (213건)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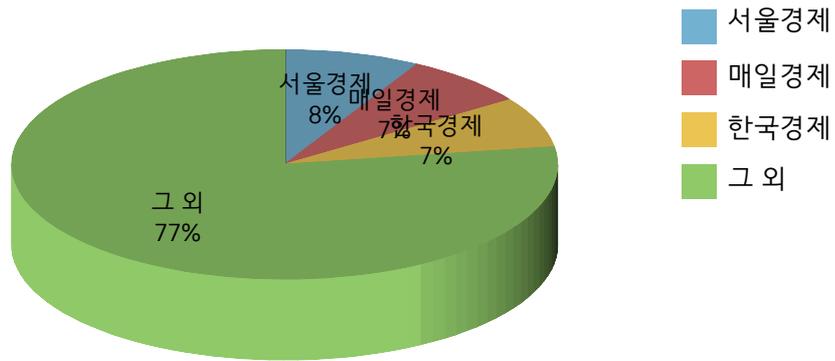
매체별로는 서울경제신문이 76건 (8.06%)으로 기사 게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매일경제신문 70건 (7.4%), 한국경제신문 67건 (7.1%) 등의 순이었다.

같은 경제신문 중에서는 머니투데이가 46건(4.87%), 헤럴드경제 33건 (3.49%) 등으로 3대 경제신문에 비해 관련 보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65건(6.89%)로 가장 많았고, 한국일보 55건(5.8%), 문화일보 44건(4.66%), 경향신문 40건(4.2%) 등의 순을 보였다.

<표 4-3> 해양수산부 관련, 주요 중앙일간지 지면보도 건수(최근 5년간)

전체	943건	100%
서울경제	76	8.06
매일경제	70	7.4
한국경제	67	7.1
동아일보	65	6.89
한국일보	55	5.8
머니투데이	46	4.87
문화일보	44건	4.66

(조사방법 - 네이버 기사검색서비스 직접조사, 키워드 ‘해양수산부 부활’, 검색조건은 ‘지면 게재’ (온라인용 기사는 제외), 기간은 2009. 4~ 2014. 4월 기사로 한정)



중앙일간지 해수부 관련 지면보도

<그림 4-5> 중앙일간지 해수부 관련 지면기사

전체 17개 신문매체 (종합일간지, 경제신문)의 해양수산부 관련 평균 보도 건수가 55건임을 감안하면 3대 경제신문의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된 기사지면 반영 빈도가 타 매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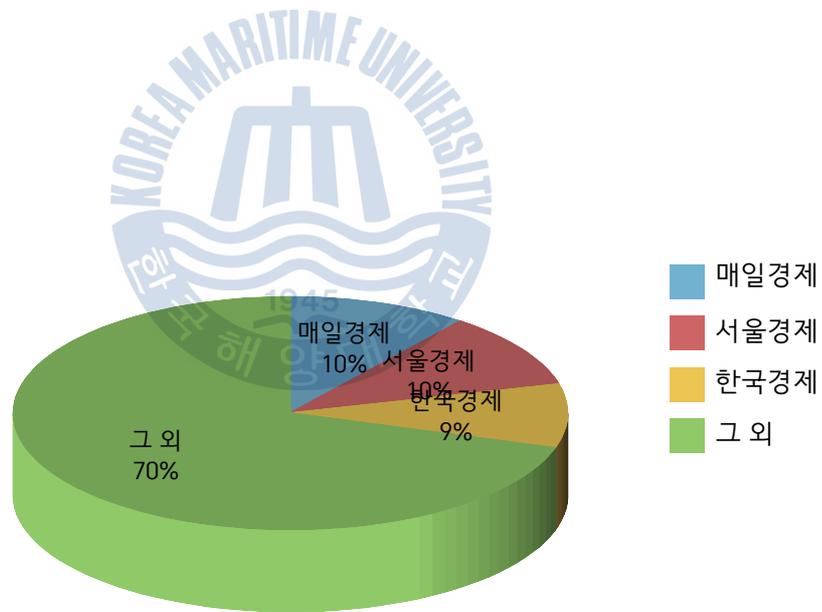
부산 북항재개발과 관련된 동 기간 동안 총 보도 건수는 124건이며, 이 가운데 3대 경제신문은 38건의 기사를 지면에 게재, 전체 보도의 30.6%를 차지했다.

매체별로는 매일경제신문이 13건(10.48%)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제신문 13건(10.48%), 한국경제신문 11건(8.87%), 서울신문 9건(7.25%), 머니투데이 7건(5.64%), 문화일보 6건(4.83%) 등의 순이었다.

<표 4-4> 주요일간지 ‘북항재개발’ 관련 지면기사 게재 분석

매체명	건수	100%
매일경제	14	10.48
서울경제	13	10.48
한국경제	11	8.87
서울신문	9	7.25
머니투데이	7	5.64
문화일보	6	4.83
한국일보	4	3.22
동아일보	4	3.22
아시아경제	2	1.61

(조사방법 - 네이버 기사검색서비스 직접조사, 키워드 ‘북항재개발’, 검색조건은 ‘지면 게재’ (온라인용 기사는 제외), 기간은 2009. 4~ 2014. 4월 기사로 한정)



중양일간지 북항재개발 지면기사

<그림 4-6> 중양일간지 북항재개발 지면기사

전체 17개 신문매체 (종합일간지, 경제신문)의 북항재개발 관련 평균 보도 건수가 7.29건임을 감안하면 3대 경제신문의 관련 기사지면 반영 빈도가 타 매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된 동 기간의 총 보도 건수는 426건이며, 이 가운데 3대 경제신문은 128건의 기사를 지면에 게재, 전체 보도의 30.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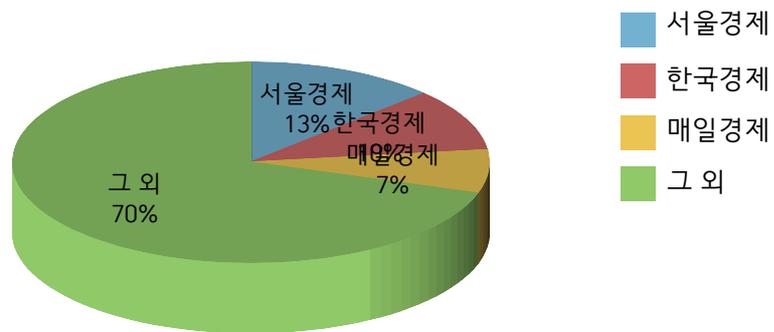
매체별로는 서울경제신문이 55건(12.91%)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신문 43건(10.09%), 매일경제신문 30건(7.04%), 머니투데이 33건(7.74%), 한국일보 21건(4.92%)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헤럴드경제 12건(2.81%), 문화일보 12건(2.81%), 경향신문 10건(2.35%), 조선일보 2건(0.469%) 등의 순을 보였다.

<표 4-5> 주요 일간지 ‘선박금융공사’ 관련 보도 분석

매체명	건 수	100%
서울경제	55	12.91
한국경제	43	10.09
머니투데이	33	7.74
매일경제	30	7.04
한국일보	21	4.92
헤럴드경제	12	2.81
문화일보	12	2.81
경향신문	10	2.35

(조사방법 - 네이버 기사검색서비스 직접조사, 키워드 ‘선박금융공사 설립’, 검색조건은 ‘지면 게재’ (온라인용 기사는 제외), 기간은 2009. 4~2014. 4월 기사로 한정)



중앙일간지 선박금융공사 지면보도

<그림 4-7> 중앙일간지 선박금융공사 지면기사

전체 17개 신문매체 (종합일간지, 경제신문)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관련 평균 보도 건수가 25.05건임을 감안하면, 3대 경제신문의 관련 기사 지면 반영 빈도가 타 매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경제신문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본 연구는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중 경제신문이 해양정책에 미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1. 연구가설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부산 해양수도화는 8개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부산해양수도화의 경쟁력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경제신문이 해양 정책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조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여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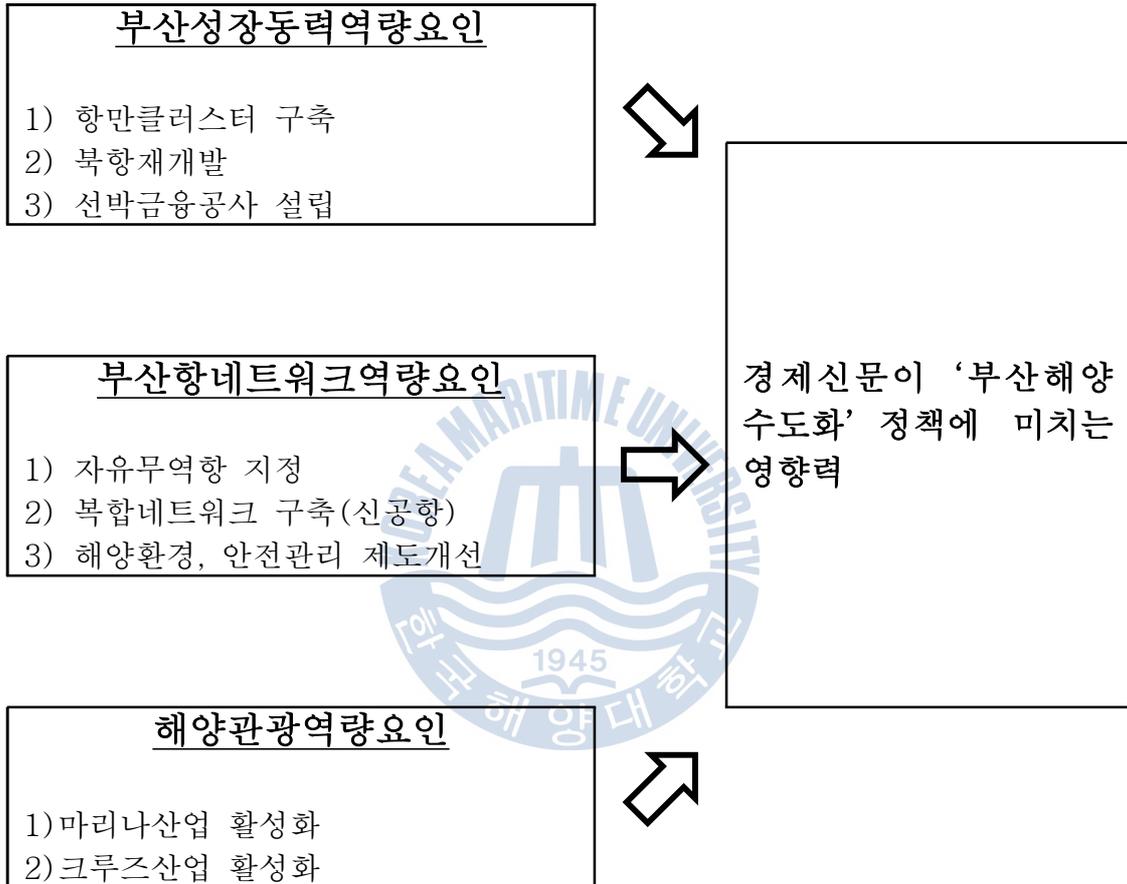
[가설 I] 경제신문의 보도는 부산 성장 동력 역량요인과 정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II] 경제신문의 보도는 부산항 네트워크 역량요인과 정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III] 경제신문의 보도는 해양관광 역량요인과 정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연구가설을 검증하여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5-1> 연구모형

제2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1. 독립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수는 부산 성장동력 역량, 부산항 네트워크 역량, 해양관광 역량 요인 등이다.

1) 부산 성장 동력 역량 요인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정책 중요도로 항만클러스터구축(a1), 북항재개발(a2), 선박금융공사설립(a3) 등 3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측정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측정 내용은 중요하지 않음=1, 약간 중요=3, 중요=5, 매우중요=7, 절대 중요=9로 하여 설문조사에 의해 측정하였다.

2) 부산항 네트워크 역량 요인

자유무역항 지정(b1), 복합네트워크 구축(b2),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 개선(b3) 등 3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측정 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내용은 중요하지 않음=1, 약간 중요=3, 중요=5, 매우중요=7, 절대 중요=9로 하여 설문조사에 의해 측정하였다.

3) 해양관광역량 요인

마리나산업 활성화(c1), 크루즈산업 활성화(c2) 등 2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측정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내용은 중요하지 않음=1, 약간 중요=3, 중요=5, 매우중요=7, 절대 중요=9로 하여 설문조사에 의해 측정하였다.

2. 종속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3대 경제신문의 해양수도화의 영향력과 신문보도의 정책에의 영향력 등 2개 변수로 설정하여 역시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과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자료는 설문조사에 의하여 수집하였고 연구대상은 부산항만공사 임직원, 부산시 공무원, 언론종사자 등이다. 다음의 표는 설문조사의 항목과 조사개요이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총 12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유효설문지는 100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설문지를 대상으로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1> 측정변수와 설문항목

변 수 명		설 문 문 항		비 고
		부	문 항	
부산 해양 수도화 정책 중요도		Ⅱ	4-6	등간척도
신문보도의 정책에의 영향력		Ⅱ	8-10	등간척도
경제신문의 해양 수도화 영향력		Ⅲ	14-15	등간척도
일 반 사 항	조사대상 기관, 직위, 연령 등	I	1-3	명목척도와 비율척도

1) 응답대상자 분포

유효설문지는 1개의 자치단체로부터 25매(25%), 1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16매(16%), 1개의 해운항만 물류 관련업체로부터 4매(4%), 언론종사자로부터 54(54%)매, 기타 1매(1%)단체 등으로부터 총 100매이다.

<표 5-2> 유효설문지 표본분포

응답기관	빈도	비율(%)
공무원	25	25
교육기관	1	1
관계기관 (공사, 공단)	16	16
해운항만물류 관련업체	4	4
언론기관	54	54
합계	100	100

2) 응답자 근속연수 분포

응답자 근속연수분포는 11년~15년 이하가 36%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 30%, 16년 이상 25%, 6년~10년 이하가 13%의 순이었다.

<표 5-3> 응답자 근속연수 분포

구분(년)	빈도	비율(%)
5 이하	30	30
6~10	13	13
11~15	32	32
16 이상	25	25
합계	100	100

3) 언론기관 응답자 직무 분포

응답자 중 언론기관 종사자의 직무 분포는 편집국(신문) 기자가 42명(42%)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국(방송) 기자가 14명(14%), 기타 3명(3%) 등의 순이었다. 시스템 결측 값은 41명이다.

<표 5-4> 언론기관 응답자 직무 분포

구분	빈도	비율(%)
보도국(방송)기자	14	14
편집국(신문)기자	42	42
기타	3	3
합계	59	59
무응답	41	41
합계	100	100

제3절 부산 해양 수도화 요인 실태분석

1.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요도

가. 부산 성장 동력 역량분석

1) 항만클러스터 구축

항만정책 중요도 중 항만클러스터 구축을 묻는 질문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1순위로 꼽은 비율이 전체의 30%로 가장 높았고, 4순위(18%), 2순위(16%), 3순위(15%) 등의 순을 보였다. 항만클러스터 구축이 부산해양수도화의 중요한 항만정책임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항만클러스터 정책중요도 응답

구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1순위	30	30.6	30.6
2순위	16	16.3	46.9
3순위	15	15.3	62.2
4순위	18	18.4	80.6
5순위	8	8.2	88.8
6순위	4	4.1	92.9
7순위	7	7.1	100.0
합계	98	100	.
무응답	2	.	.
합계	100	.	.

2) 북항재개발

북항재개발의 정책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 2순위가 26%로 가장 높았고, 3순위(23%), 1순위(15%), 4순위(15%), 5순위(9%), 6순위(9%), 7순위(1%)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1~3순위의 비율이 64%로 북항재개발의 정책 중요도가 높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표 5-6> 북항재개발 정책중요도 응답

구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
1순위	15	15.3	15.3
2순위	26	26.5	41.8
3순위	23	23.5	65.3
4순위	15	15.3	80.6
5순위	9	9.2	89.8
6순위	9	9.2	99.0
7순위	1	1.0	100.0
합계	98	100.0	.
무응답	2	.	.
합계	100	.	.

3) 선박금융공사 설립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정책중요도를 묻는 응답에서는 2순위가 22%로 가장 높았고, 3순위(20%), 4순위(20%), 1순위(13%), 5순위(10%), 7순위(6%), 6순위(4%), 8순위(1%) 등으로 답했다. 응답항목 중 1~3순위가 전체의 55%로, 정책중요도를 비교적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선박금융공사 설립 정책중요도 응답

	빈도	유효비율	누적
1순위	13	13.5	13.5
2순위	22	22.9	36.5
3순위	20	20.8	57.3
4순위	20	20.8	78.1
5순위	10	10.4	88.5
6순위	4	4.2	92.7
7순위	6	6.3	99.0
8순위	1	1.0	100
합계	96	100	.
무응답	4	.	.
합계	100	.	.

나. 부산항 네트워크 역량분석

1) 자유무역항 지정

자유무역항 지정의 정책 중요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1순위가 30%로 가장 높았고, 4순위(18%), 2순위(16%), 3순위(15%), 5순위(8%), 7순위(7%), 6순위(4%)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1~3순위가 61%로 자유무역항 지정의 정책 중요도가 높다는 응답 수준을 나타냈다.

<표 5-8> 자유무역항 지정 정책중요도 응답

	빈 도	유효비율	누 적
1순위	30	30.6	30.6
2순위	16	16.3	46.9
3순위	15	15.3	62.2
4순위	18	18.4	80.6
5순위	8	8.2	88.8
6순위	4	4.1	92.9
7순위	7	7.1	100
합 계	98	100	.
무응답	2	.	.
합 계	100	.	.

2) 재원조달과 투자체계 합리화

재원조달과 투자체계 합리화의 정책 중요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3순위(18%)가 가장 높았고, 5순위(15%), 6순위(15%), 1순위(13%), 7순위(13%), 2순위(8%), 8순위(1%) 등의 응답 순을 나타냈다. 4순위~7순위까지가 전체의 56%로 부산항의 정책 가운데 재원조달과 투자체계 합리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5-9> 재원조달과 투자체계 합리화 정책중요도 응답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1순위	13	13.5	13.5
2순위	8	8.3	21.9
3순위	18	18.8	40.6
4순위	13	13.5	54.2
5순위	15	15.6	69.8
6순위	15	15.6	85.4
7순위	13	13.5	99.0
8순위	1	1.0	100.0
합 계	96	100.0	.
무응답	4	.	.
합 계	100	.	.

다. 해양관광 역량 분석

1) 마리나산업 활성화

해양 정책 중요도에서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응답에서는 5순위가 30%로 가장 높았고, 6순위(29%), 7순위(21%), 4순위(9%), 3순위(7%) 등의 응답 순을 보였다.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1순위 또는 2순위라고 응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리나 산업 활성화 항목에서는 5~7순위가 전체의 80%를 차지해 부산 해양수도화의 정책가운데 비교적 정책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했다.

<표 5-10> 마리나 산업 활성화 정책중요도 응답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3순위	7	7.3	7.3
4순위	9	9.0	16.7
5순위	30	30.0	47.9
6순위	29	29.0	78.1
7순위	21	21.0	100.0
합 계	96	96.0	.
무응답	4	4.0	.
합 계	100	100.0	.

2) 크루즈산업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정책중요도 응답에서는 7순위가 50%로 가장 높았고, 6순위(29%), 5순위(8%), 4순위(6%), 2순위(2%), 3순위(1%)의 응답순을 보였다. 이 정책의 중요성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답한 사람은 전무했다. 반면 5~7순위가 80%로 해당 정책의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5-11>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중요도 응답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2순위	2	2.1	2.1
3순위	1	1.0	3.1
4순위	6	6.3	9.4
5순위	8	8.3	17.7
6순위	29	30.2	47.9
7순위	50	52.1	100.0
합 계	96	100.0	.
무응답	4	.	.
합 계	100	.	.

3) 해양 수도권화 정책결정과 실행의 효율성

상기 부산 해양 수도권화 연관 부산의 역량 요인 중 해양 수도권화 정책결정과 실행의 효율성에 대한 응답에서 다소 그렇다(28%)와 보통이다(28%)가 각각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렇지 않다(21%), 그렇다(18%), 아주 그렇다(5%) 등의 순을 보였다.

부산의 해양 수도권화에 대한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결정과 실행의 효율성을 상기 설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면 대체로 보통이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해양수도화 정책결정과 실행의 효율성 응답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아주 그렇다	5	5.0	5.0
그렇다	18	18.0	23.0
다소 그렇다	28	28.0	51.0
보통이다	28	28.0	79.0
그렇지 않다	21	21.0	100.0
합계	100	100.0	.

라.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의 인식차이

<표 5-13> 공무원과 언론종사자의 인식 차이

해양수도화 요인	대분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자유무역항지정	공무원 등	3.0222	2.00555	.206	.835
	언론기관	2.9434	1.73665		
항만클러스터 구축	공무원 등	3.1806	1.59248	1.788	.077 *
	언론기관	2.5849	1.69199		
북항재개발	공무원 등	2.5909	1.36940	-2.981	.004 **
	언론기관	3.4815	1.58698		
선박금융공사설립	공무원 등	3.7209	1.94356	1.969	.052
	언론기관	3.0377	1.45394		
재원조달과 투자체계 합리화	공무원 등	4.2363	2.06832	.336	.736
	언론기관	4.0943	1.92418		
마리나산업 활성화	공무원 등	5.5116	1.31606	.089	.930
	언론기관	5.4906	1.01190		
크루즈산업 활성화	공무원 등	5.8140	1.40163	-3.165	.002 **
	언론기관	6.5094	.69677		
해양수도화정책결정과 실행의 효율성	공무원 등	3.1304	1.18526	4.872	.000 ***
	언론기관	2.1111	.90422		

*표본수 공무원 등=46개, 언론종사자=54개 *유의확률 : * p<0.1, ** p<0.05, *** p,0.01

부산 해양수도화와 연관된 주요 정책들의 중요도에 대한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자유무역항 지정(a1), 항만클러스터구축(a2), 북항재개발(a3), 재원조달과 투자체계합리화(a5) 등 4개 변수는 공무원 등과 언론 종사간에 인식차이가 없으며, 선박금융공사 설립(a4), 마리나산업 활성화(a6), 크루즈산업 활성화(a7), 해양 수도화 정책결정과 실행의 효율성(a8) 등 4개 변수는 유의적인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a4)과 마리나산업 활성화(a6), 크루즈산업 활성화(a7) 및 해양수도화 정책결정과 실행의 효율성(a8) 등 4개 변수는 공무원 등에 비해 언론종사가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2. 부산해양수도화의 언론 역할 분석

가. 정책목표와 언론역할

1) 정책목표에 대한 언론의 역할 분석

부산해양수도와 관련된 정책목표에 대한 언론의 역할분석 응답에서는 정책적 대안제시 기사(50%)가 가장 높았고, 여론주도형기사(16%), 외국 사례 발굴기사(15%), 칼럼기사(10%), 정책실패 폭로기사(9%) 등의 순을 보였다. 해양수도화의 정책목표에 언론의 정책적 대안제시기사에 해당 정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5-14> 정책목표에 대한 언론의 역할

구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정책적 대안제시기사	49	49.0	49.0
정책실패 폭로기사	13	13.0	62.0
여론주도형 기사	15	15.0	77.0
외국사례 발굴기사	22	22.0	99.0
칼럼기사	1	1.0	100.0
합계	100	100.0	.

2) 해양 수도화에 필요한 기사내용

해양 수도화에 필요한 기사내용을 묻는 응답에서는 정책적 대안제시 기사(49%)가 가장 많았고, 외국사례발굴기사(22%), 여론주도형 기사(15%), 정책실패 폭로기사(13%), 칼럼기사(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책과 여론, 사례, 폭로 등을 담은 다양한 기사가 해양 수도화에 필요한 언론 기사임을 골고루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15> 해양수도화에 필요한 기사내용

구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정책적 대안제시 기사	49	49.0	49.0
정책실패 폭로기사	13	13.0	62.0
여론주도형 기사	15	15.0	77.0
외국사례 발굴 기사	22	22.0	99.0
칼럼기사	1	1.0	100.0
합계	100	100.0	.

3) 언론보도의 정책 반영이유

언론보도의 정책반영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언론의 영향력 때문(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부기관의 질책이나 감사우려 때문(17%)’, ‘후속보도를 막기 위해서(5%)’, ‘언론의 전문성 때문(1%)’ 등의 순을 보였다. 언론보도의 영향력이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16> 언론보도의 정책반영 이유

구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언론의 영향력 때문	31	51.4	57.4
후속보도를 막기 위해	5	9.3	66.7
상부기관의 질책, 감사우려때문	17	31.5	98.1
언론보도의 전문성 때문	1	1.9	100.0
합계	54	100.0	.

4) 경제신문의 해양수도화 관련 보도 빈도

부산 해양수도화를 위한 경제신문의 보도빈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통이다(27%)가 가장 많았고, 아주 그렇다(26%), 그렇다(24%), 그렇지 않다(13%), 다소 그렇다(10%) 등의 응답 순이었다.

경제신문의 보도 빈도가 높다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보통

또는 다소 그렇다가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점으로 미뤄 경제신문이 부산 해양수도화를 위한 보도 빈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5-17> 경제신문의 보도빈도

구 분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그렇지 않다	13	13.0	13.0
보통이다	27	27.0	40.0
다소 그렇다	10	10.0	50.0
그렇다	24	24.0	74.0
아주 그렇다	26	26.0	100.0
합 계	100	100.0	.

5) 신문보도의 정책에 영향력

신문보도의 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에서는 그렇다(59%)가 가장 높았고, 아주 그렇다(29%), 다소 그렇다(7%)의 순으로 응답했다. 보통이다(2%), 그렇지 않다(3%) 등 부정적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응답 항목을 통해 신문보도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부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5-18> 신문보도의 정책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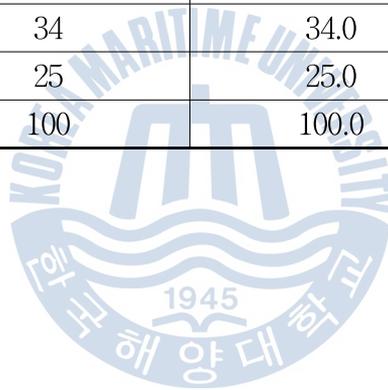
구 분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그렇지 않다	3	3.0	3.0
보통이다	2	2.0	5.0
다소 그렇다	7	7.0	12.0
그렇다	59	59.0	71.0
아주 그렇다	29	29.0	100.0
합 계	100	100.0	.

6) 경제신문의 해양 수도화에 대한 영향력

경제신문의 해양 수도화에 대한 영향력을 묻는 항목에서는 그렇다(34%)가 가장 많았고, 아주 그렇다(25%), 다소 그렇다(13%), 보통이다(13%) 등의 순을 보였다. 경제신문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렇지 않다(15%)는 부정적 응답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5-19> 경제신문의 해양수도화에 대한 영향력

구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그렇지 않다	15	15.0	15.0
보통이다	13	13.0	28.0
다소 그렇다	13	13.0	41.0
그렇다	34	34.0	75.0
아주 그렇다	25	25.0	100.0
합계	100	100.0	.



나. 부산 해양수도화의 언론 역할 분석

1)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의 인식차이

<표 5-20>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의 인식차이

부산해양수도화의 언론 역할 분석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정책목표에 대한 언론의 역할	공무원	1.8478	1.31601	-2.725	.008 *
	언론	2.6111	1.48472		
경제신문의 보도 빈도	공무원	2.8043	1.34362	-2.860	.005 *
	언론	3.5926	1.40778		
신문보도의 정책에 영향력	공무원	3.8261	1.06049	-3.008	.003 **
	언론	4.3148	.50746		
경제신문의 해양수도화에 영향력	공무원	3.1087	1.10007	-2.094	.039 **
	언론	3.6667	1.55406		
해양수도화에 필요한 기사내용	공무원	1.7609	1.21445	-2.780	.007 **
	언론	2.4444	1.23879		
언론보도의 정책 반영이유	공무원	1.7273	1.00905	-.193	.848
	언론	1.7907	.96506		

*표본수 공무원 등=46개, 언론종사자=54개 *유의확률 : * p<0.1, ** p<0.05, *** p,0.01

부산 해양수도화와 연관된 언론 역할에 대한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정책목표에 대한 언론의 역할(a1), 경제신문의 보도빈도(a2), 경제신문의 해양 수도화에 영향력(a5), 해양 수도화에 필요한 기사내용(a6) 등 4개 변수는 공무원 등과 언론 종사간에 인식차이가 없으며, 신문보도의 정책에 영향력(a4), 언론보도의 정책반영 이유(a6) 등 2개 변수는 공무원 등에 비해 언론종사가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3. 주요 해양 정책에 대한 언론의 역할 중요도 분석

가. 해양 정책과 언론역할

1) 자유무역항 지정

부산해양수도화의 정책 중요도가 높은 항만 정책 중 자유무역항 지정의 언론역할을 묻는 항목에서 ‘다소중요(42%)’가 가장 높았고, ‘아주 중요(23%)’, ‘절대 중요(21%)’, ‘약간 중요(11%)’ 등의 순을 나타냈다. ‘중요하지 않다(3%)’고 응답한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 부산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데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인식을 대다수 응답자들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5-21> 자유무역항 지정의 언론역할 중요도

구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중요하지 않음	3	3.0	3.0
약간 중요함	11	11.0	14.0
다소 중요함	42	42.0	56.0
아주 중요함	23	23.0	79.0
절대 중요함	21	21.0	100.0
합계	100	100.0	.

2) 항만클러스터 구축

항만클러스터 구축의 언론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36%가 ‘다소중요’하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아주 중요(31%)’, ‘약간 중요(23%)’, ‘절대 중요(6%)’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보통 수준(1%)’, ‘중요하지 않다(1%)’ 등 부정적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항만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다수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5-22> 항만클러스터 구축의 언론역할 중요도

구 분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중요하지않음	1	1.0	1.0
약간 중요	23	23.0	24.0
보통수준	1	1.0	25.0
다소중요	38	38.0	63.0
매우중요	31	31.0	94.0
절대중요	6	6.0	100.0
합 계	100	100.0	.

3) 북항재개발

북항재개발의 언론역할 중요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아주 중요 (43%)’가 가장 많았고, ‘절대 중요(19%)’, ‘다소 중요(19%)’, ‘약간 중요(10%)’ 등의 순을 보였다. ‘중요하지 않다’는 9%로 소수에 불과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아주 중요’ 이상이 전체의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대다수 응답자들이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표 5-23> 북항재개발의 언론역할 중요도

구 분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중요하지않음	9	9.0	9.0
약간 중요	10	10.0	19.0
다소 중요	19	19.0	38.0
아주 중요	43	43.0	81.0
절대 중요	19	19.0	100.0
합 계	100	100.0	.

4) 선박금융공사 설립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언론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아주 중요(43%)’가 가장 높았고, ‘절대 중요(30%)’, ‘다소 중요(13%)’, ‘약간 중요(10%)’ 등의 순이었다. ‘중요하지 않다(2%)’고 응답한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

전체의 73%가 ‘매우 중요’ 이상을 선택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언론 역할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대다수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5-24>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언론역할 중요도

구 분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중요하지않음	2	2.0	2.0
약간 중요	10	10.0	12.0
다소 중요	13	13.0	25.0
아주 중요	43	43.0	68.0
매우 중요	2	2.0	70.0
절대 중요	30	30.0	100.0
합 계	100	100.0	.

5) 재원조달과 투자체계합리화

재원조달과 투자체계 합리화의 언론 역할의 중요도 응답에서는 ‘다소 중요’가 40%로 가장 높았고, ‘아주 중요(21%)’, ‘약간 중요(20%)’, ‘절대 중요(14%)’, ‘중요(2%)’의 순을 보였다. ‘중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은 3%에 그쳤다. 이 항목에서는 ‘다소 중요’와 ‘약간 중요’가 전체의 60%를 차지, 비교적 언론역할의 중요도를 보통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5-25> 재원조달과 투자체계 합리화의 언론역할 중요도

구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중요하지않음	3	3.0	3.0
약간 중요	20	20.0	23.0
다소 중요	40	40.0	63.0
중요	2	2.0	65.0
아주 중요	21	21.0	86.0
절대 중요	14	14.0	100.0
합계	100	100.0	.

6)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언론역할 중요도 응답에서는 ‘절대 중요(35%)’가 가장 많았고, ‘다소 중요(27%)’, ‘아주 중요(21%)’, ‘약간 중요(13%)’, ‘매우 중요(2%)’의 순이었다. ‘중요하지 않다(3%)’는 소수에 불과했다.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평균 이상의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7%를 차지해 언론의 역할 중요도를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5-26>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의 언론역할 중요도

구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중요하지않음	2	2.0	2.0
약간 중요	13	13.0	15.0
다소 중요	27	27.0	42.0
아주 중요	21	21.0	63.0
매우 중요	2	2.0	65.0
절대 중요	35	35.0	100.0
합계	100	100.0	.

7) 마리나산업 활성화

마리나산업 활성화에 있어 언론 역할의 중요도 응답에서는 ‘다소 중요(39%)’가 가장 많았고, ‘아주 중요(28%)’, ‘약간 중요(15%)’, ‘절대 중요(8%)’, ‘매우 중요(2%)’ 등이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음(7%)’, ‘거의 중요하지 않음(7%)’ 등 부정적 의견은 응답자의 8%를 차지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언론 역할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평균 이상의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5-27> 마리나산업 활성화의 언론역할의 중요도

구 분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중요하지않음	7	7.0	7.0
거의 중요하지않음	1	1.0	8.0
약간 중요	15	15.0	23.0
다소 중요	39	39.0	62.0
아주 중요	28	28.0	90.0
매우 중요	2	2.0	92.0
절대 중요	8	8.0	100.0
합 계	.	100.0	.

8) 크루즈산업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있어 언론역할 중요도 항목에서는 ‘다소 중요’가 40%로 가장 높았고, ‘아주 중요(26%)’, ‘약간 중요(22%)’, ‘절대 중요(6%)’, ‘매우 중요(1%)’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언론 역할의 중요도는 ‘다소 중요’와 ‘약간 중요’가 전체의 62%를 차지해 응답자들이 평균 수준의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5-28>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언론역할의 중요도

구 분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중요하지않음	5	5.0	5.0
약간 중요	22	22.0	27.0
다소 중요	40	40.0	67.0
아주 중요	26	26.0	93.0
매우 중요	1	1.0	94.0
절대 중요	6	6.0	100.0
합 계	100	100.0	.

9)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에 있어 언론 역할 중요도 응답에서는 ‘아주 중요(34%)’가 가장 많았고, ‘다소 중요(26%)’, ‘절대 중요(20%)’, ‘약간 중요(18%)’ 등의 순 이었다.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2%로, 부정적 인식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 이상의 응답자와 ‘보통 중요’ 응답자가 거의 동일 수준으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9>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 언론역할의 중요도

	빈 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중요하지않음	2	2.0	2.0
약간 중요	18	18.0	20.0
다소 중요	26	26.0	46.0
아주 중요	34	34.0	80.0
절대 중요	20	20.0	100.0
합 계	100	100.0	.

나. 해양 정책의 언론역할 중요도 인식 차이

1)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의 인식 차이

<표 5-30>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의 인식차이

해양정책의 언론역할 중요도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자유무역항지정	공무원	6.1304	1.92097	.775	.444
	언론	5.8148	2.28262		
항만클러스터 구축	공무원	6.0000	1.67332	3.550	.001 ***
	언론	4.7963	1.70880		
북항재개발	공무원	6.6087	2.29471	2.194	0.30
	언론	5.5926	2.31906		
선박금융공사 설립	공무원	6.9130	1.93018	.335	.738
	언론	6.7778	2.10719		
재원조달과 투자체계 합리화	공무원	5.4348	2.14634	-.203	.840
	언론	5.5185	1.97857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	공무원	6.4783	2.40129	-.250	.803
	언론	6.5926	2.16767		
마리나산업 활성화	공무원	5.1957	2.10417	-.594	.554
	언론	5.4444	2.07106		
크루즈산업 활성화	공무원	5.4783	2.03021	1.569	.120
	언론	4.8704	1.84336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	공무원	5.8267	2.00338	-.932	.354
	언론	6.2222	2.24589		

*표본수 공무원 등=46개, 언론종사자=54개 *유의확률 : * p<0.1, ** p<0.05, *** p,0.01

부산 해양 수도화와 연관된 주요 정책 중 언론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자유무역항의 언론역할 중요도(a1),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언론역할중요도(a4), 재원조달과 투자체계합리화의 언론역할 중요도(a5),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의 언론역할 중요도(a6), 마리나산업 활성화의 언론역할 중요도(a7), 등 5개

변수는 공무원 등과 언론 종사간에 인식차이가 없으며, 항만클러스터 구축의 언론역할 중요도(a2), 북항재개발 개발의 언론역할 중요도(a3),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언론역할 중요도(a8),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a9) 등 4개 변수는 공무원 등에 비해 언론종사가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2) 부산항 경쟁력 영향요인의 정책 중요도 순위 분석

<표 5-31> 경쟁력 영향요인의 중요도 순위 분석

변수명	평균순위	순 위
자유무역항 지정(중)	4.99	3
항만클러스터 구축(중)	4.39	5
북항재개발 구축(중)	4.94	4
선박금융공사 설립(중)	5.67	1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중)	5.32	2
마리나산업 활성화(중)	3.41	7
크루즈산업 활성화(중)	3.19	8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중)	4.11	6

주 : 순위 분석은 칸달의 순위검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값은 다음과 같음.

전체: N=100, Kendall의 W(일치계수)=.155, 카이제곱=108.600, 자유도=7, 근사 유의확률=.000

부산항 경쟁력 영향요인의 정책순위도 검정결과에 의하면 선박금융공사 설립(a4)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a5), 자유무역항 지정(a1), 북항재개발 구축(a3), 선박금융공사 설립(a4), 항만클러스터 구축(a2),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a8), 마리나산업 활성화(a6), 크루즈산업 활성화(a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부산 해양수도화 주요 정책의 언론역할 중요도 순위 분석

<표 5-32> 주요 정책의 언론역할 중요도 순위 분석

변수명	평균순위	순 위
자유무역항지정	4.65	4
항만클러스터 구축	3.86	6
북항재개발	4.86	3
선박금융공사설립	5.69	1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	5.15	2
마리나산업 활성화	3.76	7
크루즈산업 활성화	3.51	8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	4.54	5

주 : 순위 분석은 칸달의 순위검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값은 다음과 같음.

전체: N=100, Kendall의 W(일치계수)=.124, 카이제곱=86.684, 자유도=7, 근사 유의확률=.000

부산 해양 수도화 주요정책의 언론역할 중요도 순위 검정결과에 의하면, ‘선박금융공사 설립(a4)’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a5)’, ‘북항재개발(a3)’, ‘자유무역항 지정(a1)’,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a8)’, ‘항만클러스터 구축(a2)’, ‘마리나산업 활성화(a6)’, ‘크루즈산업 활성화(a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4절 부산해양수도화의 언론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1. 타당성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축요인 추출과 직교회전방법인 베리맥스 방법(Varimax Rotation)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기본원리는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 하나의 요인을 형성하게 하고 형성된 요인들은 상호 독립

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요인 내에 묶여진 항목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없으므로 각 요인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인 내의 항목들은 집중타당성에 해당되며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타당성 검정에 앞서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본인가를 판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KMO 표본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0.70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부산 해양 수도화 요인의 타당성 검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부산 해양 수도화 요인은 8개 변수로서 이들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에 의하면, 부산 해양 수도화 정책 요인은 총 8개 변수 3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요인의 설명력은 각각 24.593%, 21.466%, 21.294%로서 3 요인의 설명력은 67.353%이며 KMO 값은 0.673이고 Bartlett 구형성 검증의 유의확률 값은 .000수준으로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임이 검정되었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항만클러스터구축, 북항 재개발,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3개 변수가 제1요인으로 묶여서 추출되었고, 둘째 유형은 자유무역항 지정, 복합네트워크 구축, 해양관광 안전관리 제도개선 등 3가지 변수가 제2요인으로 묶여서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마리나산업 활성화, 크루즈 산업 활성화 등 2개 변수로 제3요인으로 묶여서 추출되었다.

<표 5-33> 부산해양수도화 요인의 요인분석결과

요인명	변수명	요인적재값			공통성
		1요인	2요인	3요인	
요인1 부산성장동 력 역량	항만클러스터구축	.625	.417	.343	.683
	북항 재개발	.872	-.033	.097	.770
	선박금융공사 설립	.764	.077	-.099	.599
요인2 부산항네트 워크 역량	자유무역항 지정	.376	.713	.116	.663
	복합네트워크 구축	.139	.801	.116	.674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	-.176	.696	.170	.545
요인3 해양관광 역량	마리나산업 활성화	-.012	.080	.934	.879
	크루즈산업활성화	.127	.294	.884	.885
요인설명력	고유치	1.94	1.91	1.85	
	분산율(%)	24.28	23.86	23.09	71.231
모형적합도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 .56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06.578, 자유도=28, 유의확률=.000				

2. 신뢰성분석

크론바하 알파 검정에 의한 신뢰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1요인인 부산 성장동력 역량 요인의 신뢰성계수는 0.699, 제2요인(부산항네트워크구축역량)은 0.639 그리고 제3요인(해양관광역량)은 0.861로서 전체 8개 부산 해양 수도화 역량 요인 변수의 신뢰성계수는 0.744로서 설문조사의 응답의 일관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부산항네트워크구축역량 요인이 6.976으로서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부산 성장 동력 역량 요인이 6.956이며 해양관광 역량 요인은 5.955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4> 부산해양수도화 요인의 신뢰성분석결과

요인명	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Cronbach의 알파
요인1 부산성장동력 역량요인	항만클러스터구축	6.6100	1.79728	0.699
	북항재개발	6.8000	2.37835	
	선박금융공사설립	7.4600	2.02220	
요인2 부산항네트워크 구축 역량요인	자유무역항지정	7.0400	2.02470	0.639
	복합네트워크구축	7.3000	1.99241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	6.5900	2.09422	
요인3 해양관광 역량요인	크루즈산업활성화	6.0300	1.85023	0.861
	마리나산업활성화	5.8800	1.95546	
전체 평균		6.71340		0.755

3. 가설검정

본 연구가설을 검정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방법으로는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SPSS 8.0 통계패키지¹⁷⁾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 다변량 회귀분석모형】

$$Y_{kj} = a + B_1 \times X_{1j} + B_2 \times X_{2j} + B_3 \times X_{3j}$$

Y_{kj} ; 경제신문의 부산 해양수도화 정책 영향력(k = 3개 현황변수,
j = 응답수)

B_n ; 독립변수에 회귀계수

X_{1j} ; 부산 성장동력 역량요인(요인1)

X_{2j} ; 부산항 네트워크 역량요인(요인2)

X_{3j} ; 해양관광 역량요인(요인3)

17)안광호 임병훈, 「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2013, p251-270.

1) 신문보도의 정책에의 영향분석

<표5-35> 회귀분석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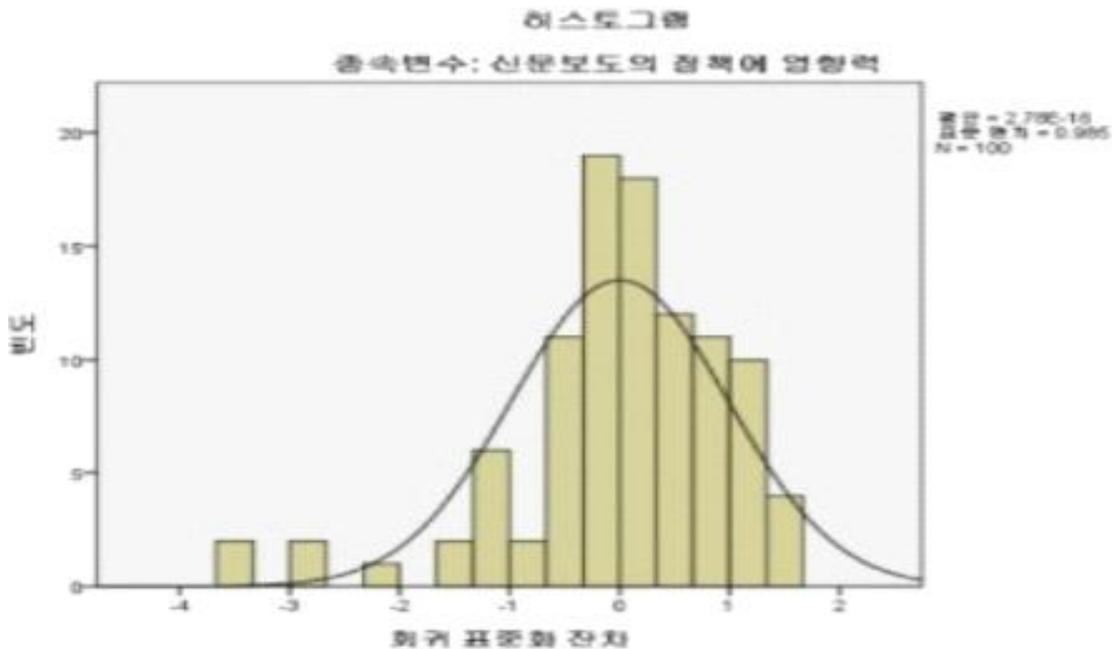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F	유의확률
.167	.141	.78028	6.428	.001

<표5-36> 신문보도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

독립변수 (부산해양수도화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090	.078		52.417	.000
부산성장동력역량	.150	.078	.178	1.911	.059*
부산항네트워크역량	.080	.078	.095	1.017	.312
해양관광역량	.300	.078	.356	3.821	.000 ***

유의확률 : * p<0.1, ** p<0.05, *** p,0.01

<표 5-35>의 적합성도표에서 R²은 0.167이고 F 값은 6.428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상기 회귀분석모형은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6>에서 나타났듯이 신문보도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양관광역량요인은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산항네트워크역량요인과 부산 성장동력 역량요인은 언론보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요인 중에서도 부산항네트워크역량요인이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영향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2〉 신문보도의 정책에 영향력의 정규 분포도

2) 경제신문이 부산 해양 수도화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표 5-37〉 회귀분석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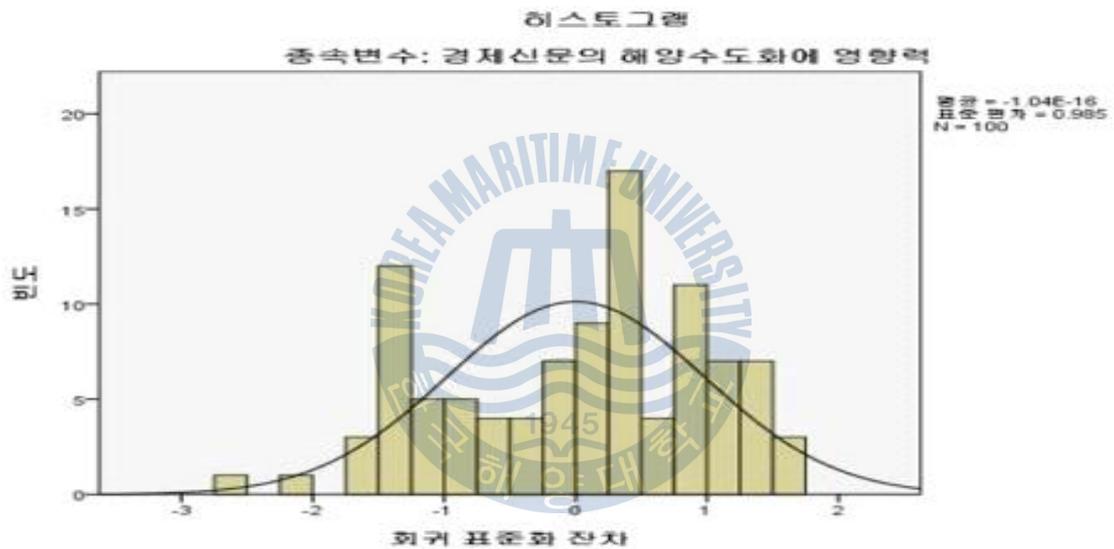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F	유의확률
.172	.146	1.28054	6.662	.000

〈표 5-38〉 경제신문이 부산해양수도화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

독립변수 (부산해양수도화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3.410	.128		26.629	.000
부산성장동력역량	.236	.129	.170	1.836	.070*
부산항네트워크역량	.328	.129	.236	2.546	.012**
해양관광역량	.410	.129	.296	3.183	.002 ***

유의확률 : * p<0.1, ** p<0.05, *** p,0.01

<표 5-37>의 적합성도표에서 R2은 0.167이고 F 값은 6.662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상기 회귀분석모형은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8>에서 나타났듯이 경제신문이 부산 해양 수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양관광역량요인은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산항네트워크역량요인과 부산 성장동력 역량요인은 언론보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요인 중에서도 부산 성장동력 역량요인이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영향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3> 경제신문의 해양 수도화 영향력의 정규 분포도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산해양수도화의 변수에 대한 정책중요도 순위검정결과에 의하면, 선박금융공사설립 문제가 가장 변수가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 자유무역항 지정, 북항재개발, 항만클러스터 구축,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 마리나산업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 순으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은 북항재개발을 가장 변수가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언론종사는 항만클러스터 구축을 가장 변수가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다소간의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로, 부산 해양 수도화 변수에 대한 언론역할 중요도 순위 검정결과에 의하면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에 언론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 북항재개발, 자유무역항 지정,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 항만클러스터 구축, 마리나산업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 순으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 해양 수도화와 연관된 주요 정책 중 언론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공무원 등과 언론종사자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자유무역항의 언론역할 중요도(a1),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언론역할중요도(a4), 자원조달과 투자체계합리화의 언론역할 중요도(a5), 신공항 등 복합네트워크 구축의 언론역할 중요도(a6), 마리나산업 활성화의 언론역할 중요도(a7), 등 5개 변수는 공무원 등과 언론 종사간에 인식차이가 없으며, 항만클러스터 구축의 언론역할 중요도(a2), 북항재개발 개발의 언론역할 중요도(a3),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언론역할 중요도(a8), 해양환경 안전관리 제도개선의

언론역할 중요도(a9) 등 4개 변수는 공무원 등에 비해 언론종사가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로, 신문보도의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렇다(59%)가 가장 높았고, 아주 그렇다(29%), 다소 그렇다(7%)의 순으로 응답했다. 보통이다(2%), 그렇지 않다(3%) 등 부정적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응답 항목을 통해 신문보도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부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넷째로, 경제신문의 해양 수도화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렇다(34%)가 가장 많았고, 아주 그렇다(25%), 다소 그렇다(13%), 보통이다(13%) 등의 순을 보였다. 경제신문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렇지 않다(15%)는 부정적 응답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섯째로, 부산해양수화와 관련된 정책목표에 대한 언론의 역할분석 응답에서는 정책적 대안제시 기사(50%)로 가장 높았고, 여론주도형기사(16%), 외국사례 발굴기사(15%), 칼럼기사(10%), 정책실패 폭로기사(9%) 등의 순을 보였다. 해양수도화의 정책목표에 언론의 정책적 대안제시기사에 해당 정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양 수도화에 필요한 기사내용을 묻는 응답에서는 정책적 대안제시 기사(49%)가 가장 많았고, 외국사례발굴기사(22%), 여론주도형 기사(15%), 정책실패 폭로기사(13%), 칼럼기사(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책과 여론, 사례, 폭로 등을 담은 다양한 기사가 해양 수도화에 필요한 언론 기사임을 골고루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의 정책반영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언론의 영향력 때문(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부기관의 질책이나 감사 우려 때문(17%)’, ‘후속보도를 막기 위해서(5%)’, ‘언론의 전문성 때문(1%)’ 등의 순을 보였다. 언론보도의 영향력이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부산 해양수도화를 위한 경제신문의 보도빈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통이다(27%)가 가장 많았고, 아주 그렇다(26%), 그렇다(24%), 그렇지 않다(13%), 다소 그렇다(10%) 등의 응답 순이었다. 경제신문의 보도 빈도가 높다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보통 또는 다소 그렇다가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점으로 미뤄 경제신문이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보도 빈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해양 수도화를 위한 경제신문의 역할 및 영향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부산 해양 수도화’와 직접적 연관이 깊은 주요 사안 별로 이들 3대 경제신문의 보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얻었다. 관련 보도 사례는 ‘해양수산물 부활’과 ‘북항재개발’,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은 3개 변수를 키워드로 설정했다. 기사 게재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개년 동안 보도된 전체 17개 중앙일간지(종합일간지 10개, 경제지 7개)를 대상으로 관련 보도 건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네이버 뉴스검색 시스템을 활용, 지면에 게재된 기사를 대상으로 했고, 각 관련 키워드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에 주된 주어로 포함된 사례만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키워드별로는 ‘해양수산물 부활’과 관련된 보도는 17개 언론에서 총 943건의 보도건수 가운데 3대 경제신문 보도가 전체의 22.6%(213건)을 차지했다. 매체별로는 서울경제신문이 76건(8.06%)으로 기사 게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매일경제신문 70건(7.4%), 한국경제신문 67건(7.1%) 등의 순이었다.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65건(6.89%)로 가장 많았고, 한국일보 55건(5.8%), 문화일보 44건(4.66%), 경향신문 40건(4.2%) 등의 순을 보였다.

‘북항재개발’과 관련된 총 보도 건수는 124건이며, 이 가운데 3대 경제신문은 38건의 기사를 지면에 게재, 전체 보도의 30.6%를 차지했다. 매체별로는 매일경제신문이 13건(10.48%)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제신문 13건(10.48%), 한국경제신문 11건(8.87%), 서울신문 9건(7.25%), 머니투

데이 7건(5.64%), 문화일보 6건(4.83%) 등의 순이었다. 전체 17개 신문매체(종합일간지, 경제신문)의 북항재개발 관련 평균 보도 건수는 7.29건이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과 관련된 총 보도 건수는 426건이며, 이 가운데 3대 경제신문은 128건의 기사를 지면에 게재, 전체 보도의 30.0%를 차지했다. 매체별로는 서울경제신문이 55건(12.91%)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신문 43건(10.09%), 매일경제신문 30건(7.04%), 머니투데이 33건(7.74%), 한국일보 21건(4.92%)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헤럴드경제 12건(2.81%), 문화일보 12건(2.81%), 경향신문 10건(2.35%), 조선일보 2건(0.469%) 등의 순을 보였다. 전체 17개 신문매체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관련 평균 보도 건수가 25건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부산 해양수도화’ 와 관련된 총 4가지 키워드별로 3대 경제신문의 기사 게재 빈도를 분석한 결과, 3대 경제신문 기사게재 건수의 합은 각 키워드별 해당 기사 전체 17개 중앙일간신문 보도 건수의 22.6%~30.06%를 차지했다. 이 같은 보도 빈도수를 바탕으로, 3대 경제신문이 ‘부산 해양수도화’ 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일관된 뉴스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그 동안 국가경제 분야의 전문 정보와 정책 문제, 여론 전달 등을 담당해온 3대 경제신문들이 부산해양수도 조성에 어떤 역할을 하고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3대 경제신문이 부산 해양 수도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들이 실증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경제신문이 ‘국민경제 이바지’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2대 도시이며, 최대 항만도시인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화’가 비단, 지역적인 문제를 벗어나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3대 경제신문은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유사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산항과 관련된 해양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집단 가운데 해양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언론이라고 소개한바 있다. 또 매스미디어는 정책문제를 탐사, 조사 및 폭로를 통해 공표,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입안을 요구하며 정치적 결과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영향을 미쳐,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매스미디어는 정책문제 제기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행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론이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신문의 지속적인 보도 행위가 ‘부산 해양 수도화’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유사한 선행연구 에서도 나타났듯이, 미디어가 정책입안 등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을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의 각 실무 담당자들이나 해양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실행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사

보도 내용을 실제로 어느 정도 참고하고 반영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간지 해양담당기자, 해양 전문지 기자 등 해양 전문성을 갖춘 언론종사들을 대상으로 해양 정책 입안, 개선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보도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증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이럴 경우 경제신문, 나아가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국민경제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보도경향이나 논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류은주 외(2003), 「모발학 사전」 광문각.

한국사전연구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매일경제(1991), 「서정우 칼럼」, 매일경제신문사.

비주얼 다이브(2014), 「매체별 신뢰도조사」.

블로터 닷넷(2012), 「국내 SNS사용자 조사」.

연합뉴스(2010), 「한국 소셜네트워크 이용률 세계 4위권」, 퓨 리서치.

이상윤(2010), 「언론이 해양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철수(2003),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양완(2009),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시(2010), 「동북아해양수도' 도약 비전 업무보고」.

안광호 임병훈(2013), 「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2013,

2. 국외문헌

William G. Cochran(1957), 「Gertrude M. Cox, Experimental Designs, 2nd, Edition」, New York·John Wiley & Sons, Inc.



부산의 해양수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부산의 해양수도화를 위한 언론 역할이라는 저의 석사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선생님의 귀중한 시간이 향후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부산이 해양수도로 거듭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의 답변은 팩스나 e-mail을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일체 활용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 : 서울경제신문 부산취재본부, 한국해양대학교 항만물류학과

설문기간 : 2014. 6. 4 ~ 2014. 6. 20

연 락 처 :

- 광경호 기자(취재본부장)

TEL : 010) 3370-0149

FAX : 051) 888-8644

e-mail : bestk77@naver.com

I. 일반문항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 공무원 ② 연구기관 ③ 교육기관
④ 관계기관(교통, 해운, 물류 관련 공단·공사)
⑤ 해운, 항만, 물류 관련 업체 ⑥ 언론기관
⑦ 기타()
2. 귀하가 언론기관에 종사하신다면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 보도국 ② 편집국 ③ 기타()
3. 해당 분야에 귀하가 종사한 년 수는? ()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년 이상

II. 해양수도화 목표 및 추진방향 및 언론 역할 관련 문항

4. 「부산의 해양수도화 구축」에 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 ① 부산항전체를 자유무역항(Free Port) 지정() ②신항 배후에 해양 클러스터 구축()
- ③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④ 선박금융센터 설립과 부산 유치()
- ⑤ 재원조달 및 투자체계의 합리화 () ⑥ 부산 마리나 산업 활성화 ()
- ⑦ 크루즈 산업 활성화 () ⑧ 기타 () ()

5. 「부산의 해양수도화 구축」을 위해 부산시의 정책결정과 실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다소 그렇다 ④ 보통이다 ⑤ 그렇지 않다

6. 「부산의 해양수도화 구축」을 위해 부산시의 정책결정과 실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 개일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 ① 중앙정부 지원 미흡() ② 예산 부족()
③ 여론 수렴과 정책의 응집력 미흡() ④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미흡()
⑤ 관련 기관의 부산 유치역량 미흡() ⑥ 기타 () ()

7. 「해양수도화」에 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의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 ① 정책적 대안 제시 기사 () ② 정책 실패 폭로 기사 ()
③ 여론 주도형 기사 () ④ 외국사례 발굴 기사 ()
⑤ 칼럼기사 () ⑥ 기타 () ()

8. '부산 해양수도화'와 관련된 보도가 타 신문매체에 비해 3대 경제신문의 보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다소 그렇다 ④ 보통이다 ⑤ 그렇지 않다

9.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련 보도를 할 경우 해당 보도들이 정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다소 그렇다 ④ 보통이다 ⑤ 그렇지 않다

10. 3대 경제신문의 관련 보도가 '부산 해양수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다소 그렇다 ④ 보통이다 ⑤ 그렇지 않다

11. 본인이 해양관련 담당 기자라면 부산 해양수도화를 위해 어떤 기사를 주로 다룰 계획입니까? ()

- ① 정책적 대안 제시 기사 ② 정책적 실패 폭로기사 ③ 여론주도형 기사 ④. 외국 사례 발굴 기사 ⑤ 칼럼기사

12. 본인이 기자활동 중 취재 보도한 주요 정책 등과 관련된 비판 또는 대안 제시 기사로 인해 관련 정책이 변화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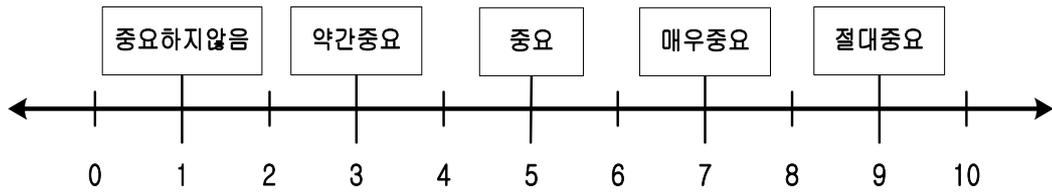
13. (12번 문항 중 (있다)로 답하신 분들만 체크해주세요) 정책입안자거나 실행부서에서 관련 보도를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언론의 영향력 때문에 ② 후속 보도를 막기위해서 ③ 상부기관의 질책이나 감사 우려 때문에 ④ 언론보도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III. 해양수도화를 위한 추진과제에 대한 문항

14. 부산시가 해양수도화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추진과제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중요도와 언론의 역할을 각각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 언론의 역할은 해당 란에 V표시하여 주시고 정책중요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추진과제	정책 중요도	언론의 역할				
		중요치 않음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 부산항전체를 자유무역항(Free Port) 지정						
○ 신항 배후에 해양클러스터 구축						
○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 선박금융센터 설립과 부산 유치						
○ 재원조달 및 투자체계의 합리화						
○ 복합운송 네트워크 구축(Sea&Air 등) -신공항 건설						
○ 부산 마리나 산업 활성화						
○ 크루즈 산업 활성화						
○ 해양 환경, 안전관리 제도 개선						

15.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의 해양수도화를 위한 다른 주요정책과제나 언론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16. 상기 정책과제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